

## 욥기 개요: 고난과 인내와 회개와 회복

성경말씀: 욥23:10; 42:1-6

역사서, 대언서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인생 이야기, 희로애락 감정, 교리 중심의 책이 아니다. 인생의 교훈 강조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아버지의 인자한 교훈

욥기 기록자: 욥, 기록 시기: 주전 2100-2200년경, 기간: 약 1년

이름: 욥은 '고난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를 뜻한다. 대다수 성경 학자들은 욥을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추정함. 욥은 역사적 인물(겔14:14, 20; 약5:11),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주제: 욥이 당한 시험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목적: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고 신자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아라비아 사막의 우스라는 곳에 거하던 경건한 사람 욥에게 일어난 고난과 그 고난을 둘러싼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로 인한 문제 해결의 경과를 기록한다. 욥은 자식도 많고 재산도 풍부하여 동쪽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믿음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뒤 먼저 욥의 소유물과 가족을 빼앗고 이어서 독한 중기로 그의 전신을 쳐서 그를 괴롭혔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 전통적인 교리를 내세우며 욥이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욥은 이를 반박하였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양쪽에 잘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분개하여 충고하고 중재를 시도하지만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불완전하였으며 최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결말이 난다. 욥기는 42장

42장을 몇 달에 걸쳐 강해, 위어스비, Melvin Tinker, Bethinking.org, 파이퍼 등 참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욥의 고난, 그가 고난당했음을 누구나 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난의 목적을 잘 모른다. 2. 욥의 인내(약5:11), 3. 욥의 회개(42:1-6), 4. 고난을 통한 하나님 경험 설교자가 욥에 대해 강해하려면 설교자 자신이 고난과 인내와 회개를 알아야 한다. 피상적 No!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부에 하는 것이 좋다. 나도 아직 이르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

### 인생은 무엇인가?

집 구매, 방 하나 보고 No! 차 구매, 타이어만 보고 No!, 책 판단, 한 장만 보고 No!

인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실수 하나, 혹은 업적 하나 No! 큰 그림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온다.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

심지어 인간 역사 경영, 유대인 학살 600만 명, 북한 동포들 죽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렘29:11)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23:10), 금 제련, 금은 제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용광로에 남는 것은 찌꺼기, 어차피 버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욥의 실화를 통해 고난 속의 숨겨진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 회개, 행복한 결말 내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언한다.

욥의 위대함: 인간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인간다움을 드러냄

### 하나님의 존재 논쟁

창조물의 정교함, 박테리아 하나도 현미경으로 보면 완벽한 설계, 심히 아름다움, 우주의 별들의 질서 인체의 모든 기관,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벽함, 지적 설계 없이는 불가능

그런데 반대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고통과 고난, 전쟁, 기근

악한 자들의 득세, 의로운 자들의 학대 및 가난, 인생이 꼬임

욥기는 "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통이 닥치는가?" 그 속에 숨겨진 은혜

욥기는 42장, 지루한 책일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핵심을 간파해야 한다.

### 욥기 개관

평안하던 욥에게 갑작스레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연속으로 닥친다.

우스 땅의 의인(1), 일곱 아들, 세 딸(2), 큰 부자(3)

1. 그런데 첫째로 그의 가정과 경제가 무너진다(16-17). 아이들이 다 죽는다(19).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20): 겹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애통함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20), 여기서 고통과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고통을 당한다(14:1-2). 이쯤해서 멈추면 좋겠다.

더 고난당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절규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아직 41장이 남아 있다.

2. 2장에 가면 그의 아내가 나온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9).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의 아내를 비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인간의 취약함이 또 나온다. 참다가도 아내나 남편이 혹은 가족이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3. 3장부터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한다(31장까지).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속을 후비는 말만 늘어놓는다. “네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저주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선한 자에게는 선한 일이, 악한 자에게는 악한 일이 생긴다. 회개해라.”

욥의 대답,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선을 베풀다.”

욥의 눈에는 그렇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4.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 고통은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일장 혼시  
이런 고통을 당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서적 몇 개 읽고 철학적 이야기

어느 면에서 들을만한 신학, 그런데 그 안에는 위로가 빠져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리 신학이 위대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롬12:15). 기뻐하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

5. 37장까지 이런 대화가 오간다. 친구들의 정죄, 욥의 자기변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음, 결혼이 깨짐, 부모 자식 관계, 직장, 직장에서도 일이 꼬임, 병이 자꾸 도진다. 누구 때문인가? 내가 문제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 나를 코너로 몰

6. 이 와중에 드러난 욥의 믿음과 인내: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

7. 드디어 회오리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38:1), 첫 질문(2), 3-4절

38-42장에 66개 질문, 한 질문 안에 두 개로 보임(38:24), 총 77개

1. 내 창조 세상을 이해하느냐?(38:1-38) 2. 내 창조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느냐?(38:39-39:30)

3. 내 창조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느냐?(40:6-41:34), 하나도 대답 못함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압도하려는 것이다. 41:11

아무 대답도 없다. 잔인하지 않은가? No! 욥은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 그분에게 기도했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이제야 드디어 경험함(42:5). 그래서 자기 모습과 위치 확인, 창조 세상의 하나의 창조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 빠지고 사랑할 것 없음. 그래서 회개함(6). 이제는 대답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보는가?

1. 성경을 통해, 욥에게는 없었다.

2. 과학을 통해, 현미경, 망원경 등 과학의 발전 자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 줌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분  
그분의 기적들(폭풍우, 물 위를 걸음, 소경의 눈, 죽은 사람을 살림, 십자가 부활)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요20:28),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은 포도나무, 가지, 가지를 친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요15)

이 모든 교훈을 주시기 위해 심지어 사탄도 동원하심(잠16:14)

4.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 모두 체험, 욥과 비교가 안 되는 것들  
히4:15-16, 5:8-9,

5. 욥기 강해를 통해 고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와 믿음으로 체험하자.

## 욥의 고난 드라마 시작: 고통은 인생의 한 요소이다

성경말씀: 욥1:1-22

인생의 여러 요소; 희로애락, 고통, 1. 인내, 2.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4000년 전 욥, 롬15:4 여러 자료, 위어스비의 강해가 가장 포괄적이며 내게 은혜를 끼침, 중심으로 강해, <제목>

### 욥의 번영과 형통(1:1-5)

우스 땅에 거함: 사우디아라비아, 에돔 근방(1)

성품: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 죄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창6:9)

성숙한 사람, 행위가 올곧은 사람,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킴(2:3)

좋은 성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함(28:28),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존중함  
일곱 아들과 세 딸(2), 자식들 간에 우의가 좋음(4): 좋은 부모의 영향

많은 재산(3), 재산이 하나님에게서 욥(1:21), 많이 베풀(4:1-4; 29:12-17; 31:16-32)

친구들이 있었다(2:11).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좋은 친구들, 다투었지만 화해함

### 욥의 1차 재난(1:16-19)

이 모든 재물과 자식들을 하루에 잃는 재난 발생, 4명의 사자가 와서 악한 보고를 함(14-19)

1.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 약탈(14-15), 2.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을 불태움(16), 3.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탈취함(17), 4.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아들딸들이 다 죽음(18-19)
- 전9:12, 누구에게나 고난과 재난은 예고 없이 닥친다. 이번에 밀양 병원 화재, 예외가 없다.

재난이 닥쳤다. 그런데 왜 닥쳤을까? 이것이 핵심

욥의 경우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 주셔서 알 수 있다(6-12). 마귀 개입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롬15:4).

1. 사람과 인류의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 마귀도. 이런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함(성경 전체 57, 욥기에만 31회)
2. 사탄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7; 2:2). 그는 지옥에 갇혀 있지 않다.
3. 그는 하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도를 고소한다. 사탄: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 큰 용, 저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계12:9),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12:10)  
하나님의 판단: 그는 고난받을 죄가 없다(1:8; 2:3; 42:7), 마귀: 배반할 것이라고 고소함(9-11)
4. 욥의 고난: 사탄의 고소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 이런 고난이라면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욥의 친구들 말: 죄를 창안해서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그러나 욥은 순전함을 지켰다.
5.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도들 건드림, 궁극적으로 성도의 행복, 귀한 성품 개발  
그래서 어떤 경우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은 마귀를 잠잠케 하려는 하나님의 무기, 인내가 해당 대한민국의 시련도 마찬가지, 미혹의 그림자 한반도 전체(시12:8), 마귀를 궤멸시킬 줄로 믿는다.

### 욥의 충성(1:20-22)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욥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맞는가, 마귀가 맞는가?

욥이 경배하고는 엄청난 고백

1.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청지기직(21)
2.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간에 사람이 얻는 것은 사람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딤후6:7).
3.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21).
4.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를 짓지 않음. 이것으로 이야기는 다 끝남, 이것을 우리는 충성(fidelity, loyalty)이라고 함

시대가 악하므로 충성된 사람을 찾기 어려움, 이순신, 김유신, 계백 장군의 위대함: 충성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의 위대함: 충성에 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에 충성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 연속되는 욥의 불행(2-3장)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또다시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함(2:1-3)

1. 이번에는 그의 몸과 건강에 손을 대기 원함(4-5).

그 결과 그에게는 심한 종기가 생김(7-8), 너무 심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함(2:12). 모든 병의 원인이 사탄과 마귀들인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미치는 일(마8:28-34), 말 못하는 일(마9:32-33), 눈먼 일(마12:22), 몸이 굽는 병(18년, 눅13:11-17), 콧코 찌르며 쉬지 않는 고통(고후12:7)

너무나 보기에 흉측해서 그의 집안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함(19:13-20). 동네 밖

2. 그의 아내의 저주(2:9)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시험함,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고통을 거의 다 경험한 사람은 욥: 아내와 세 친구만 남았다. 그런데 그들마저 그를 버림.

아담은 이브의 딸, 아브라함도 이브의 딸을 들음, 욥의 위대함: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음(10) 또 다시 욥의 위대함의 드러남(10), 롬15:4

누가 그의 아내를 비난하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한 말

가장 위대한 사람, 부자,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동네 밖의 쓰레기통에 앉아서 상처를 긁고 있음 “주여,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의 취약함과 무기력을 표현한 것임

3,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성도에게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롬15:4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감정, 환경,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고통 속에서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 믿음, 순전함(충성)

하나님이 사람을 치실 때에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1492년 70일 여행, 선상 반란, 죽을 뻔한 위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간에 포기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했으면 아무도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욥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결국 그의 아내가 돌아오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얻었다(42:13).

#### 욥의 세 친구들(2:11-13)

1.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11). 위로하려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2. 티끌을 뿌리고 그와 함께 이레 동안 말없이 땅에 앉음(12-13)

3. 많은 경우 참된 위로는 말없이 함께 해 주는 것이다.

#### 욥의 한탄(3:1-24)

이레 후에 그는 자신의 생일을 한탄함(3). 예레미야도 그리하였다(렘20:14-18). 버텨야 한다.

불평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괜찮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는 사람인지라 이런 헛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는 소리들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종종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는 다섯 번에 걸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묻는다(11-12, 20).

“왜, 왜!” 라고 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 필요는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기 바로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묻는다.

아무 대답이 없다. 답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 도움이 될까? 다리가 아프다. 엑스레이, 뼈에 금, 고통이 사라질까?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취약함을 표출한다. 가능하다.

#### 욥의 통찰력(3:25-26)

욥은 항상 자식들, 종들, 건강, 재산 등을 신중하게 관리했다. 악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임하였다(25).

모든 재산, 부귀영화, 형통함이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안전과 안식과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다(26). 즉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고난이 임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의 변론

#### 성경 기록이 보여 주는 것

1.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불완전하다. 앞날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일
2.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조심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3. 불평과 불만은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들 수 있다.
4. 고통을 당할 때 선한 사람도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 죽기를 시도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앞으로 회개 보고하는 날이 다가온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5. 예수님만 죄 없는 존재,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발을 지켜 주신다(벧전2:22-25). 롬15:4

##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성경말씀: 욥4:1-21

인생의 여러 요소; 희로애락, 고통, 1. 인내, 2.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롬15:4

욥의 고난: 재물, 자식, 아내, 그런데 이 일 뒤에 마귀가 있다.

그의 친구들이 욥, 이레 동안 땅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위로함(2:13),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함(3:1-26). 헛소리(6:26), 노심초사하며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닦쳤다(26).

친구들이 응답하기 시작함(4:1). 욥의 헛소리에. 그의 마음속 아픔이 아니라 헛소리

상하고 아픈 마음은 논리로 치료하지 못한다. 사랑으로만 가능. 친구들에게 그것이 없음, 사랑 안에서 진리(엡4:15), 욥기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친구들 말 중에서도 옳은 말이 있다.

지금부터 욥기 강해: 가능한 한 강해, 그리고 욥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진리를 취해 집중 설명

### 욥의 세 친구들 개관(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나이가 들었고 욥보다 나이가 더 늙

1.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이 늙. 가장 먼저 말함

그는 지혜로 유명한 데만 사람(렘49:7): 자기의 꿈과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말함, 전통을 중시함, 하나님을 융통성이 전혀 없는 신으로 여김, 누가 죄 없이 망하였느냐?(욥4:7)

2. 빌닷은 그 다음, 그는 율법주의자(법대로 하자), 8:20, 자기 친구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않음

3. 소발, 교조적이다. 융통성 없는 기숙사 사감, 욥이 그나마 적게 고통을 받고 있다(11:6).

4. 이 세 사람은 바른 말도 하고 진리도 말하고 어리석은 말도 함. 도움이 되지 못함(궁홀이 없다)

이들의 신학은 편협하다. 죽은 정통이다. 이들의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존재 이들이 욥에게 심한 말을 한 이유,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닦칠까 두려워하였다(6:21).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욥이 굴복하지 않자 계속해서 그에게 화를 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신사도, 변영 신학

처음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13:4; 42:7-8).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말한다(32:2)

### 엘리바스의 응답과 책망

그의 접근 방법(2-4): 온유하게 시작하였으나 결국 독기가 들어감

이제 이레가 지났으니 말을 해야겠다(2). 너도 과거에 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지 않았느냐?(3-4)

예수님에 대한 고소(마27:42)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4).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한다. 적당한 때에 바르게 한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악한 말은 낙심한 사람을 더 수렁으로 집어넣는다.

그의 비난(5-11): 네가 남에게 조언을 주었으나 받지는 못하는구나(5).

롬8:28을 아무 때나 인용하면 안 된다. 럭크맨의 친구 John Hall, 하반신 마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함, 마약을 함, 오순절 은사 집회에도 감, 끌어안고 울어 주었다. 기뻐하는, 슬피 우는(롬12:15)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불의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7-9).

꼭 그렇지만은 않다(시37; 73:2-5; 렘12:1-6). 눅13:1-5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도 결국은 보응을 받아 망한다(10-11). 너도 마찬가지다.

### 엘리바스의 확신의 근거(꿈과 경험)

1. 꿈(4:12-21)

엘리바스의 꿈(12-16), 그 영의 말(17-21)

일단 주님의 계시가 아니다. 1.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주님의 계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14-15).

꿈의 내용이 반만 진실이다(17-21). 사람이 미약한 존재, 맞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맞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맞는 말 17절-18절,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목사 등(사2:22)

사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꿈을 통해 영을 빙자하여 말한 것이다.

꿈을 좋아 하면 안 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환상 계시 등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통해 하신다(히1:1). 계시가 완성되었다.

전5:1-3

## 2. 인생 경험(5:1-7)

욥의 상처에 식초를 붓더니 이제는 소금을 붓는다(1).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욥의 진노와 질투가 결국 그를 죽인다(2).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한다(3-5). 그러므로 욥 너도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다. 시73:17의 아삽, 천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인생 경험의 문제: 사람마다 다르고 제약이 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 내가 보니 이렇더라.

가시광선(눈으로 자각되는 빛, 380-780나노미터), 가청주파수(16-20000Hz)

특히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다(뇌를 못 본다).

어떤 사람은 곧바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죽은 뒤에 받는다(전8:10-14).

6-7절도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욥을 괴롭히는 말, 잡초와 달리 고통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생하는데 네가 바로 마음속에서 네 죄를 키워 왔다.

자기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함(8)

어떤 하나님(9-14),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9-10), 간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거역하는 자들을  
패망(12-14), 가나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15-16), 애통하는 자들 위로(11)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징계로 받으라(17-18).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 것이다(19-26). 내 말은 확실하다(27).

이것은 사탄의 말과 동일하다(1:9; 2:4). 그가 까닭 없이 주를 두려워하나이까?

교훈: 내 꿈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과 인생은 큰 신비 속에 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것이 있어야 인생이다(5:7).

불티는 꼭 위로 날아간다. 그것처럼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다. 이것이 인생이다.

1. 인생의 문제들은 생각하게 하려고 온다.
2. 고통은 인내를 배우라고 온다.
3. 슬픔은 남에게 동정심을 보이려고 찾아온다.
4. 실패와 실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온다.
5. 두려움은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온다.
6. 어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을 믿지 말라고 찾아온다(빌3:3).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것이 있어야 인생이다.

한 소년과 아이스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처음에 타려고 하니 안 된다. 계속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다. “이제 그만 뒤라.” “그만 두려고 스케이트를 산 게 아니네요. 스케이트를 타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타면 한겨울에 스케이트만한 것이 있나?

성경을 20년 동안 교정하고 있다.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감사하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역사를 보라, 성경을 보라: 위대한 사람과 작품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잔소리 하는 아내, 무뚝뚝한 남편, 속 썩이는 아이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진 도구  
평창 올림픽, 2011년 확정, 국민의 염원과 꿈, 이제 김정은 공산괴뢰집단에 의해 거의 다 망가졌다.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었다. 평화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핵무기 열병식, 인공기 걸고, 태극기 내리고,  
완전 굴종의 시대, 참기가 힘들다. 이런 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요, 고역이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 고생을 통해 확고하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깨달은 뒤 바르게 선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인생의 경험

우리 주님도 인생의 고생을 다 아시고 체험하셨다(사53:3-9; 히4:15)-16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직업, 배우자, 가정, 경제 등

심지어 국가 체제로 인한 고통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생하며 눈물 흘리던 유대인 민초들

그래서 왕을 삼으려는 그 심정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북한 동포들의 고통, 아신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애국 시민들의 고통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평창 올림픽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특히 강원 도민들을 위해, 선수들을 위해

그리고 마귀가 무슨 계락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삼시간에 송두리째 들어 불 속에 집어 넣으시도록

친중, 친북, 반미 반 대한민국 세력들의 정체와 위선이 드러나서 강력한 심판을 받도록

이번의 고통을 통해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 욥기 분석

### 책 소개(1-2장)

#### 욥과 친구들의 논쟁(3-42장)

##### I. 첫 번째 논쟁 시리즈(3-14장)

(1)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논쟁을 시작함(3장)

(2) 엘리바스의 말(4-5장)

(3) 욥의 대답(5-6장)

(4) 빌닷의 말(8장)

(5) 욥의 대답(9-10장)

(6) 소발의 말(11장)

(7) 욥의 대답(12-14장)

##### II. 두 번째 논쟁 시리즈(15-21장)

(1) 엘리바스의 말(15장)

(2) 욥의 대답(16-17장)

(3) 빌닷의 말(18장)

(4) 욥의 대답(19장)

(5) 소발의 말(20장)

(6) 욥의 대답(21장)

##### III. 세 번째 논쟁 시리즈(22-31장)

(1) 엘리바스의 말(22장)

(2) 욥의 대답(23-24장)

(3) 빌닷의 말(25장)

(4) 욥의 대답(26-31장)

##### IV. 엘리후의 말(32-37장)

##### V. 논쟁의 귀결(38-42장)

(1)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38-41장)

(2) 욥의 회개와 축복(42장)



## 모든 말에는 위력이 있다

성경말씀: 욥6:1-14, 24-30

갑작스런 욥의 고난: 재물, 자식, 아내, 세 친구들의 위로, 욥이 자기 출생 한탄, 나는 노심초사하며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재난(3:25-26), 세 친구들(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그를 대적함.  
가장 먼저 엘리바스(4-5장), 지혜로 유명한 데만 사람(렘49:7): 자기의 꿈과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말함, 누가 죄 없이 망하였느냐?(욥4:7). “네 고통은 네 죄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은 바른 말과 진리를 많이 말하고 어리석은 말도 함. 도움이 되지 못함(공허이 없다)

이들의 신학은 편협하다. 이들의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존재

내 꿈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과 인생은 큰 신비 속에 있다. 욥6-7은 욥의 응답  
6장: 너희는 제발 공허를 가지고 나를 대하라. 7장: 죽기 전에 제발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제목>

### 욥의 응답(6): 친구들에게

엘리바스가 욥을 논박함: 다른 두 친구들도 말은 안 했으나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는 시련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이레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동정심 즉 ‘네 아픔이 내 마음에 있다.’가 없음.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전혀 대답하지 않음

1. 욥의 고통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2-3). 이들도 그의 상황에 빠졌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 말이 나가지 못하고 속으로 들어감(3).
2. 욥의 고통의 쓴 맛을 알지 못하였다(4-7). 그 이유 하나님의 화살들의 표적, 화살들의 독이 그의  
영을 쓰라리게 만들, 심판들이 연약한 자 하나를 위해 퍼부어짐, 여기에 친구들이 가세함,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낙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말  
욥의 4가지 질문: (5-6), 대답은 다 No!, 6절 고통이 메스껍다. 혹은 엘리바스의 말이 메스껍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것을 먹으려니 고통과 슬픔이 심하다(7).

3. 욥의 소망 없는 상황(8-13). 인생이 붕괴되는 과정, 고통이 심하자 인생을 살 힘을 잃게 된다(9,  
11). 의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욥의 한탄(12), 소망이 사라지자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23). 쓸모없는 존재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여 달라고 간구함(3:20-23; 6:8-9;  
7:15-16; 10:18-19; 14:13). 그는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 주기를 원함

4.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14-20).

그들(내 형제들)개울과 같다. 시원한 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날이 덥자마자 사라짐(15-18)

5. 그들은 자기들도 이런 역경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다(21). 그래서 더 욥을 반박함
6. 욥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다(22-23).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게 하라(24).
7. 바른 말들은 위력이 있다(25). 그런데 너희 말은 형편없다.
8. 욥의 말(3장)은 헛소리(26), 욥기의 위대한 말 중의 하나
9. 이 와중에 그들이 바른 데로 돌아오라고 요청함(29-30).

10. 요점 정리: 비난하지 말고 1. 가르쳐 주라. 2. 말을 줄이고 그냥 함께하라.

이들은 욥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 걸은 지나가는 레위 사람과 제상(눅10:30-37). 우리에게  
는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를 위로할 때 성경을 들이대고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 대개 아무 의미 없음

먼저 인간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오자마자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 욥의 응답(7): 주님에게

1. 정해진 기간이 있다(1), 하루살이 품꾼의 날들과 같다(1-2).  
이들은 그나마 바랄 것이 있으나 욥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4-5).
2. 인생은 짧다(6). 베 짜는 자의 북, 베를 짤 때 전체 작품은 하나님만 알고 북은 모른다.
3. 인생은 바람(7)과 구름이다(9-10). 그래서 그는 지금 불평하고 있다(11).
4. 위험한 인물(12): 풍량이 이는 바다, 엄청난 규모의 짐승
5. 심지어 잠도 자기 어려움(13-14). 그 결과 죽기를 원한다(15-16).

6. 심지어 침도 삼키지 못한다(17-18). 도망할 수 없다.

7.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소서.

결국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욥이 알지 못한 영역을 보여 주신다(시19:12-14).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 은밀한 죄

### 모든 말에는 위력이 있다

욥기는 그와 그의 친구들 간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말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다. 바른 말이 아니라(25)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

1.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말을 한다.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말을 못하면 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말씀이다(요1:1). 예수님의 오병이어 설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요6:63),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10:17). 인간이 인간인 것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것

2. 말에는 파위가 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원래 말은 의로운 용도로 사용될 때 파위를 낸다.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죄에 빠진다.

루시퍼의 말(사14:13-14), 사탄의 말, 이브의 말(창3:1-5)

어느 면에서 말이 곧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3. 그래서 말에 의해 우리는 의롭게 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마12:34-37).

4.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모두 의로운 말이며(사45:23) 의로운 말은 사람을 책망해서 선을 이룬다(미2:7).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5.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만 의롭다(골4:6).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은혜롭게’

6.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자의 말을 통해 활동한다(눅21:15). 그래서 위력이 있다(욥6:25).

7. 악한 자의 악한 말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딤후2:17).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는다. 이단 욥의 친구들의 말: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의로움이 없다. 고난당한 자를 볼 때 의로움은 같이 동정해 주는 것. 욥의 친구들 말은 아무리 진리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이렇지는 않은가?

그 이유: 다른 사람의 절망과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의 예, 욥의 말(3장), 어떤 때는 헛말도 쏟아져 나온다(26).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좋은 친구라면 헛소리임을 간파하고 묵묵히 들어주며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8. 하나님의 말씀들은 의로우므로 그것들을 숨기면 안 된다(6:10).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더 강한 자가 되었다. 단단한 자가 되었다. 그 이유: 말씀들을 숨기지 않음

1. 우리 자신에게 숨기면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2. 다른 이들에게 숨기면 안 된다. 그분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3. 말씀들은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알려 줌, 그러므로 숨기면 그분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

4. 숨기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죄를 지으려고,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5.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딤후4:1-2).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고전15:3-4), 오직 그분만 구원자, 사람은 거짓말쟁이

6. 그 증언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6:6). 소금이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맛, 2. 헌신의 열정의 소금, 3. 인생 경험의 소금, 4. 성령님의 파위의 소금

9. 회개도 말로 하는 것이다(7:20). 그 결과 욥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짐

10. 이번 주에는 말로 글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자.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11.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책을 주셨다.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

## 고통의 시간은 인생 허비가 아니다.

성경말씀: 욥10:1-22

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욥과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자(1:8; 2:3) 사탄이 욥을 2번 대적함. 재물, 자식, 병, 아내, 그런데 욥은 두 번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음(1:21-22; 2:10). 이로써 이미 사탄의 도전은 끝이 남.

3장부터는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함

1. 욥: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운 자는 없다(9:2).

2. 그의 친구들: 또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 수 있다(8:13). 위선자는 자기가 위선자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자들: 위선자, 특히 종교적인 위선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4-7장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8-11장은 소발과 욥의 논쟁  
**빌닷의 논쟁(8장)**

빌닷은 세 가지 요점으로 욥을 공격하고 욥도 이에 항변한다.

지금 욥의 상태: 영과 육이 만신창이, 죽음 일보 직전, 소발이 쏟아붓는 위로의 말(2), 도움이 안 됨 8장에서 그는 자기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가지고 변론 시작(4:17).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려고 한다  
(3).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거의 다 맞는 말, 무엇이 문제인가?

1. 하나님의 성품(8:1-7): 하나님은 100%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잘못을 범할 수 없다.

욥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잘못하는 듯한 발언을 함. 그래서 화가 치솟음. 여기까지는 OK!

문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만 강조함: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필요: 49%:51%

긍휼이 없으면 심한 말을 한다(4);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는가?

대다수 종교인들의 문제점: 예수님의 말씀(마9:10-13), 빌닷은 구약의 율법과 비슷함

5-7절은 변영 신학의 근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변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특히 7절은 크게 오용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런데 지금 문맥에서는 욥을 비난하는 말

나중에 이상하게도 욥은 빌닷의 말대로 변창하게 됨(42:12-17). 하나님이 위선자의 말을 뒤집음

2. 과거의 경험(8-10): 역사가 무어라고 말하느냐? 옛사람들이 무어라 말하느냐?

위인전, 사마천의 사기 등을 읽는다. 교훈을 배우려고

"과거를 잊은 백성은 패망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소용없다. 에너지 낭비

배의 키와 닳: 과거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키가 되어야지 미래를 붙드는 닳이 되면 안 된다.

일제 강점기 36년 슬픈 역사, 고통의 역사, 힘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국론 분열의 결과

그러나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함께 상생하며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반일 그만해야 한다.

8절의 이전 시대 사람들은 누구인가? 욥기 약 4000년 전

욥 이전 시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 대홍수를 겪은 뒤 남은 사람들, 생생하게 그 당시 기억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삶, 셈은 500년 정도를 더 삶, 욥과 동시대를 삶

빌닷의 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너와 네 가족도 죄로 인해 심판하신다.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욥의 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창6:5, 11-12)

욥의 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죄

또 다시 받는 교훈: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정당하지 않다.

사과는 사과와 오렌지는 오렌지와 비교해야 정당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 자연계의 인과응보 법칙(11-22), a. 11-13절, 골풀, 파피루스 식물 물이 없으면 시든다.

욥도 마찬가지로, 너는 위선자다(13), b. 거미줄에 기댈 수 있느냐?(14-15), 네 확신은 거미줄과

같다. c. 정원에서 식물을 뽑아내면 곧 시들어 죽는다(16-22). 욥도 뿌리째 뽑힌 식물과 같다.

그 결과 22절 결과가 임한다.

욥의 변론(9-10):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음

9-10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려 함

1. 과연 누가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겠느냐(9:1-3)?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의가 아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를 증명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1. 사람은 하나님의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9:3).

2.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세상의 천재지변을 모두 일으키신다(5-6).

해와 달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신다(수10:12-13).

3.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다(8-10). 과학자들 우주가 팽창함을 이제 겨우 알아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주 팽창을 성경에 이야기하신다(9:9). 사40:22

4. 이렇게 엄청난 위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안 보이는 분이시다(11).

5. 그분의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12).

6.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협력자들(마귀들, 천사들 사람들)도 고개를 굽힌다(13-14).

2.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법정에 데려가는 것을 상상함(15)

1.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법정에서 변론하고 주님이 혹시 응답하신다 해도 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16). 혹시 내가 잘못 변호하면 오히려 고통만 더 늘어날 것이다(18). 내가 비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20).

2. 그의 친구들 주장: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 멸하시고 의인에게는 항상 복을 주신다. 욥의 말: 아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를 죽이고 어떤 때는 의인도 죽인다(22). 땅에는 사악한 재판관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신다(24). 이런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7-28).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4.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인이 있으면 좋겠다(33). 그런데 그런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욥의 한탄: 왜 내가 태어났는가?(10장), 한탄과 헛소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8-12). 특별히 12절. 그렇게 수고하시고는 왜 나를 멸하십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3). 왜 저를 사냥하십니까?(18). 그래서 제가 이토록 어렵습니다(1).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15). 차라리 유산되어 태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18). 제게는 구출자가 필요합니다(10:7).

4. 욥의 말 요약: “제 인생은 헛되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욥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존전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지 알 수 없다.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도 고통당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결코 인생 허비가 아니다.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의분에 차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그 뒤 인생이 역전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았다.

괴로운 시절: 그러나 그 시기가 있어서 그는 겸손하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 뒤 인생이 역전되어 이집트 탈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

5. 욥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신다. 심지어 고통의 시간에도

이때에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권고(약5:11): 우리 주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 일으켜 주신다.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세 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

6. 욥이 구하는 중재인, 구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인간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담당 하나님의 공의 만족, 사랑을 통해 사람의 구원 완성,

시85:9-11, 이것이 십자가 사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구원자

7.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므로 받는 고난은 인생 허비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성장의 밑거름

##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치리라

성경말씀: 욥11:1-10, 12:7-25

욥(15:4), 욥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고통의 의미, 인내, 하나님의 공의, 마귀의 패배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미워하시는 사람, 위선자

욥의 세 친구 중 오늘은 소발, 셋 중 가장 나이 어림, 그의 말은 길지 않은데 짜증과 화가 들어 있다.

화를 내야 사람이다. 그런데 낼 때와 참을 때를 구분해야 한다. 욥의 상황에서는 No!

### 소발의 논쟁(10장)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끈질기다.

1. 욥은 말이 많고 그 결과 죄가 많다(1). 욥은 답답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은 그의 감정을 파악 못함  
네 말은 거짓말이요, 조롱하는 말이다(3). 그리고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붙인다(4).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나타내려고 그런 인상을 주었고 헛소리도 있었으나 이런 주장은 하지 않음. 말다툼의  
원인, 문제만 말해야 하는데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하지도 않은 것을 더하는 것, 문제 해결이  
안 됨
2. 욥은 하나님을 모른다(5-12). 욥을 조롱함(7),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너비, 깊이, 높이를 모른다  
(8-9). 자기는 안다는 것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세 친구를 책망함  
욥을 자극함: 원래는 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 받는 것이다(6).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 있다(10). 사악한 자는 말할 것도 없다(11).  
들나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 네가 바로 그렇다(12).
3.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라(13-20). 아직 희망이 있다(18). 회개하면 된다(13-14). 상황이 달라진다  
(15, 17, 19). 이것은 마치 이렇게 심한 심판을 받을 죄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여 사면을 받으라는  
말, 어떻게 여기에 순응할 수 있는가? 소발의 마지막 조롱(20): 너는 사악한 자라 안 할 것이다.
4.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하나같이 같은 주장을 편다. 동정심이 없다. 이것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 욥의 논쟁(12장)

소발의 주장에 대해 욥은 할 말이 많다. 12-14장. 1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함  
나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2-3). 3절

나는 이런 사람이다(4). 지금 비웃음을 당한다. 멸시를 받는다(5). 너희 주장은 틀린다(6).

세상의 강도들과 악인들을 보라. 얼마나 잘 사는가? 김정은 일당을 보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다.

이번의 성 폭력 미투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위선자, 다행히 터졌기에 이제  
조금 알게 되었다. 욥의 말이 맞는다. 의롭다고 잘살고 죄 있다고 못사는 것이 아니다.

더더욱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늘의 복만 약속되었다(엡1:3). 변영신학 NO!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욥처럼 노심초사하며 바르게 나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발의 주장: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조사해서 알 수 없다(11:7-9). 그런데 욥은 7-1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와 심지어 이 지구(땅, 8절)가 가르친다.  
심지어 우리의 숨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10).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치리라>

1. 연어: 시애틀, 연어 샷강,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치어(稚魚)는 거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간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을 갖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연어는 방류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도 동해안이나 남대천 같은 강에서 방류하면 꼭 돌아온다. 10월경의 연어 회귀 축제, 완벽하게
2. 딱따구리: 머리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만들고 벌레를 잡아먹는다. 200종류, 1분에 100회 이상,  
하루에 12,000번, 뇌 안에 충격흡수장치, 자동차의 속업소바처럼, 완벽하게 설계가 됨
3. 도마뱀: 게코 도마뱀, 싱가포르 등, 천장에 붙어 다닌다. 무게가 40그램, 12cm, 발바닥의 비밀,  
지름이 5-10마이크로미터, 길이 50-100마이크로미터의 강한 털, 1제곱밀리미터에 5,000개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의 강모, 털의 끝에는 주걱 모양의 섬모가 수백 개가 있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벽이나 천장에 달라붙을 수 있다. 4킬로그램까지, 미국 렌슬러 공대 연구, 도마뱀보다 4배나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 발명, 게코 테이프, 반도체 제조, 무중력 상태 연구

4. 지구: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물과 공기, 40-50킬로미터 상공의 성층권(3mm), 자외선 차단  
하나님의 권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7).

입으로 음식을 맛보듯이 귀로 듣고 말들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11).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한다. “원숭이에서 나왔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종이 변합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시49:20).

특히 진리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인 동성애 지지, 종교통합, 공산주의/사회주의정부, 인민 민주  
주의, 연방제 통일

###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묘사(12-25)

욥의 소원: 나이가 들어 지혜로운 자가 이 일을 판단해 주면 좋겠다. 그의 결론은 13절

결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자연계의 모든 일(14-15), 사람의 모든 일(16-25).

1. 자연계의 모든 일 주관(14-15): 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우박

2. 모든 사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16-21).

3. 국가들의 흥망성쇠(23-25), 지금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모든 것이 사악하다. 어디서 왔는가,  
바벨 탑, 니므롯의 정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고 주장하신다.

4. 김정은이 트럼프와 5월에 회담을 한다고 한다. 국내 언론들 대한민국 정부 띄우고 난리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25년 속았는데 더 속으면 안 된다. 북한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번 회담은 최후통첩이다. 미북 회담 카드는 김정은 일당과 주사파 세력의 독배일 가능성이 크다.

해도 힘들어지고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

미국의 초지일관 입장: 회담 하겠다고 한 뒤 펜스 부통령의 언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여야 회담 가능

회담 때부터 완전 핵폐기까지 군사/경제 압박 그대로

샌더스 대변인 발표: 비핵화 조치 없으면 대화 안 한다.

그러므로 회담이 성사되려면 NPT 복귀, IAEA 사찰 승인, 모든 핵무기를 내놓아야 회담 가능

1. 지금까지 북한을 통치한 근본: 핵무기를 만들어 미제 승냥이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핵화를 하면 북한 내부의 붕괴 및 반란

2. 안하고 하는 척하면서 속이면 이제 더는 미국이 그냥 두지 않는다.

3.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호재를 만남: 비핵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며  
전 세계와 정반대로 가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라.

단 이번에 또 거짓말하면 둘 다 그냥 두지 않겠다.

“한번 속으면 속인 자가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자가 미련하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자도 공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 주권자

국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 간청하는 것

70년 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경제 대국

그런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 김일성 주사파들이 버젓이 고개 들고 국정으로 좌지우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이들 정신 교육,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 북한의 2500만 동포의 해방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의 김일성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의 모든 악랄함이 드러나서  
강권적으로 바뀌도록, 이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짐승들도 다 안다: 배은망덕하면 망한다. 북한을 보고도 추종하면 망한다고. 깨닫는 영을 주실 것을  
원한다.

##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인생은 비극이다

성경말씀: 욥14:1-22

욥의 세 친구는 차례로 욥을 공격함, 소발 역시 동일하게 정죄, “죄가 많다. 하나님을 모른다. 회개해라.”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의 상한 심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욥의 대답(12장): 나도 하나님을 안다. 심지어 짐승(날짐승, 새, 벌레)들도 안다. 땅도 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쥐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사람에게 토로해야 소용이 없음을 알고 13,14장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함  
인간은 어떤 존재, 인간의 운명, 욥이 바라는 변화, <인간의 운명과 변화의 필요>

### 욥의 결론(13:1-16)

지금까지 너희 말을 다 들었다(1). 그 결과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함을 느꼈다(2).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뢰고 변론하려 한다(3).

그 하나님의 타이틀은 전능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내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실 분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12:4 참조), 쓸모없는 의사들, 전능자와 대조되는 말

의사: 병을 고쳐 주는 사람, 인간에게 필요하다. 쓸모없는 의사가 되면 곤란하다. 욥의 세 친구  
쓸모없는 의사가 되는 길(7-8), 공식이 있다. 맞는 말 같은 데 위로를 전혀 못 주는 쓸모없는 공식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 결과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네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다.

그런 심판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괜히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 편을 들면서 욥을 비하함  
욥기의 교훈: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요9장의 나면서부터 소경(1-3), 누구의 죄 때문이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무조건 하나님 운운하면서 말하지 말라.

욥의 결론: 조용히 해라(5). 너희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조롱이다(9). 너희는 재, 진흙과 같다(12).

욥의 각오: 내 무죄를 입증하려고 심지어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13, 14). 몸이 만신창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 즉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려고 한다(15).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16). 이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너희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못 온다(16).

종교인을 가리키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사(4), 위선자(16), 벗어나야 한다.

### 죄 문제(13:17-28)

주여 두 가지만 내게 하지 마소서(20).

1. 주의 손을 멀리 두소서(21), 2. 나를 무섭게 하지 마소서(21). 3. 그리고 먼저 말씀하소서(22).

“즉 재판정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가장 먼저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알려달라고 한다(23). 주님이 그를 원수처럼 여기신다(24), 낙엽처럼

부수신다(25). 그래서 그는 썩은 물건처럼, 목 먹은 옷처럼 된다(28). 무슨 죄 때문입니까  
이제부터 욥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온다. 욥기가 가르쳐 주는 진리  
첫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 문제로 대면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양심의 법을 거역하는 것, 불법이다.

특히 젊을 때(26), 기력이 넘칠 때에는 불법이 많다. 심지어 다윗도 이를 고백한다(시25:7).

맥아더 목사님의 예, 78세 노인, 아직도 포르노 영상, 잡지를 본다. 죄가 이렇게 끈질기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창조자를 만날 대비를 해야 한다.

### 짧은 인생과 고통 문제(14:1-6)

인생은 짧고 고생바가지(1, 2), 욥기의 위대한 구절, 고생은 죄의 결과이다(창3:16-19).

이처럼 유한하고 고생만 하는 자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느냐(3)? 불평

죄를 물으시면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4)? 사람은 죄 속에서 수태되어 부정하다.

더욱이 인간의 삶은 짧다(5).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다. 쏜살 같이 빨리 지나간다(시90:10).

### 죽음 문제(14:7-12)

사람은 결국 죽는다(10, 12). 내 아버지, 파주 무덤에, 지금은 다 몸이 삭아서 뼈만 남고 없어졌다.

어쩌면 나무보다도 못하다. 나무는 베여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가지를 내고 꽃을 낸다(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면만 생각한다. 그 결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욥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들의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잠시 후에 위대한 말씀 설명

인간의 삶 잠시 정리: 인간의 죄 덩어리, 누가 보아도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동시에 고생 덩어리다. 괴테의 말: 인생에서 기쁜 날은 한 달도 안 된다. 좋다가도 바로 슬픔이 온다. 좋다가도 혹시 이것이 끝나면 어찌지 하면서 슬퍼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과 의 싸움에서는 면제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전8:8).

악인이든 선인이든 결국 죽는다.

여기서 끝나면 나무만도 못하다(1000년). 바다 거북이보다도 못하다(500년).

### 욥의 소원: 변화가 오면 좋겠다(14:13-17)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13).

위대한 말씀, 아직 계시가 분명하지 않은 때, 성령이 없던 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욥의 죽음은 무엇인가?

주께서 무덤에 내 몸을 감추고 숨겨 주시는 것,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날은 정해진 때이다. 신약성경의 용어로는 부활하는 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때

욥의 질문 및 소원(14), “죽으면 다시 사느냐?”

나중에 확실히 요약 정리: 다시 산다(욥19:25-27).

나를 위해 정해진 때를 기다리되 변화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14).

지금 식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전4:16-17)

이러면 변화가 생긴다(14).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전15:51-53).

썩을 것, 죽을 것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15). 그러면 우리는 대답한다.

이때에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신다(15).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준 우리의 몸이다.

그 결과 우리 즉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아멘 할렐루야!

### 현실은 고통이다(14:18-22)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 인생이 짧다. 고통의 연속이다. 결국 죽는다.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다 앞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소망이 없다(19).

여전히 그의 육체는 아픔을 느끼면 산다(22).

그래서 욥기14:1-2의 고백이 진실이다.

###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욥보다 나은가? 삶이 승승장구, 고통이 없나? 인생이 긴가? 죽지 않는가? 면제되지 않았다.

고전10:13, 여기서 이기게 해 주신다.

특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딤후2:12).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 여기에 왜 오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이들과 함께 바르게 서려고,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이런데 만일 부활과 휴거의 변화가 없다면 인생은 비참한 것이다. 비극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자들(고전15:19). 우리 어머니

고전15:57-58



## 욥기로 잔인한 종교 시스템 부수기

성경말씀: 욥15:1-16

욥기의 구조: 1. 욥기 책 소개(1-2), 2. 욥과 친구들의 논쟁(3-37장), 3. 하나님의 결론(38-42장)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연속 3회, 1차 3-14장, 2차 15-21장, 3차 22-31장, 엘리후 32-37장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1차 논쟁, 욥이 너희와는 이야기가 안 된다. 인간의 구조, 운명, 자기의 소원  
2차 논쟁에서는 무언가 다른 관점에서 욥기를 보려고 한다. 인간의 적대자, 욥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이것 말고는 없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욥기로 잔인한 종교 시스템 부수기>

### 2차 논쟁의 모습

1차로 3명이 욥을 정죄함, 욥이 항복하지 않음. 더 화가 남, 1차 논쟁보다 더 격하게 욥을 논박함

이유: 욥이 죄를 지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이들의 자가당착 문제: 자기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레아 교인의 고백

세 명의 문제: 자기들이 보는 면만 있다고 생각, 꼬끼리의 한 면,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봄

### 엘리바스의 주장(1-16)

1차 논쟁(4-5), 욥을 향한 인내, 동정심이 다소 들어 있다. 15장에는 전혀 없다.

그의 주장 요약(4:7-8; 5:4-5),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너는 극심한 죄인이다.

2차 논쟁에서도 그의 주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 동일하고 오히려 더 매몰차다.

욥은 지혜가 없다(1-16).

그는 욥의 말을 들은 뒤(1-6) 그것이 하찮은 동풍이라고 말한다(2).

헛된 지식(2), 무익한 이야기(3),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 갈증에 도움이 안 됨

욥을 비난함(4), 이제는 기도도 그만 둔다고 비난함.

그의 주장: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귀의 변영 신학, 하나님은 욥을 사용해서 이것의 오류를 보여 주시려 함(딤후6:5,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을 섬기는 것이다. 도깨비 방망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때 맞는 것 때문에 순종한다. 들으면 용돈, 안 들으면 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것으로 안 된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인해 순종해야 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마찬가지; 처음에 국가가 시작될 때 두려움으로 순종, 여기의 핵심은 율법

시대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이 두려워 함,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랑의 순종이었다(신6:4-5).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13:8-10)

우리는 어떤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려워서, 사랑해서: 요21,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욥은 아직 자기들보다 어려서 경험이 없으므로 지혜가 부족하다(7-10).

욥을 조롱함(7), 네가 무엇을 아느냐(8), 네게만 지혜가 있느냐(9)

그 당시 수명 200세, 욥의 아버지는 100세, 그들은 어찌면 100세 이상

나이가 든 것이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박하고 교만하여 더 나쁠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업신여기느냐?(11-13)

1차 논쟁과 똑같은 이야기 반복(14-16), 이번에는 들어라.

엘리바스의 명언(15), 여기의 성도는 saint,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하나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천주교의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교회/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 집사,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다.

사람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욥의 말(14:4)

우리는 어떤가? 엘리바스의 자가당착?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 엘리바스의 결론(17-35)

하나님은 사악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5:17-26에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축복 기술, 여기서는 죄인들의 고통 및 심판 기술 내 말을 들으라(17). 이것은 사실 내 말이 아니라 선조들의 말이다(18).

사악한 자의 운명(20, 22, 24), 그 이유(25), 이런 자가 하는 일(26-27)

부자가 되지 못한다(29). 일찍 죽는다(32-33). 이들은 다 악한 자들이다(34-35)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인가? 아니다. 가장 악한 자가 평평거리고 잘 산다(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예 영구 집권해서 잘 살려고 한다(푸틴, 시진핑 등).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 종교 시스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경건한 사람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들의 신학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 종교인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로 두고 자기들보다 덜 행하면 다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함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

2000년 쯤 지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3년 반 공생애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결국 죽인 사람들은 종교인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신 자들, 종교인, 위선자

종교인: 겉으로 보기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 눅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9-14)

예수님의 판단: 마23:27-28

종교적 모양은 다 갖추는데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한다(23절).

하는 일(13, 15), 성경은 이런 것을 '종교 시스템'이라고 한다.

### 종교와 종교인

1. 무자비하다. 2. 다른 사람 정죄(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얼마나 하느냐?), 3. 내 힘으로 의롭게,

4.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빌3:19)

의인은 축복을 받고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 내 힘으로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겠다는 것

###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려는 것: 복음 시스템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마9:12-13),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와 종교인 타파

누가 의인이 되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 사도 바울, 그의 고백(빌3:5-11)

### 결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우리 역시 이들의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뒤에도 종교 시스템으로 옆의 사람들을 죽인다.

욥은 고난을 받으며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 시스템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사랑합니

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 이 진리를 발견해야 욥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딤후1:12-15

## 인생이 꼬일 때 읍을 기억하라

성경말씀: 읍16:1-22

읍과 친구들의 2차 논쟁, 엘리바스는 여전히 동일한 것 주장, 종교 시스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읍의 항변: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 의로운 자도 고통당할 수 있다.” 종교: 잔인하다. 스스로 의롭게 만든다.

예수님은 종교를 부수러 오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

16-17장은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읍의 반박

읍의 세 가지 요청: 1.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베풀라(16:1-14), 2. 하나님에게, 제발 공의를 베푸소서(15-22), 3. 이제 충분하니 죽여 주소서(17장).

### 동정심을 베풀라

읍의 세 친구들 여전히 읍을 비난함. 그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음

읍의 말: 너희는 속이는 개울(6:15), 쓸모없는 의사(13:4), 형편없는 위로자(16:2)

miserable, 형편없다. 파렴치하다, 구질구질하다. 위로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게 만드는 자  
너희 같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4), 나 같으면 그리 하지 않을 것이다(5), 매우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7-14), 9-11

###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읍의 반응(15-16). 그럼에도 이것은 내 불의 때문이 아니다(17).

고통으로 인해 죽기를 바라지만 죽기 전에 호소하고 싶다(18).

호소 내용: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21). 같은 내용 9장, 10장, 13장  
분명히 증인이 있다(19). 내게 변호자가 있으면 좋겠다(21).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분이 이미 있다(요일2:1-2; 히2:17-18; 4:14-16)).

### 죽여 주소서

변호자를 원하는 이유, 나는 곧 죽을 것이다(16:22; 17:1)

자기 친구들은 보증을 서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3-5, 10). 그들은 위로를 준다며 아침을 한다(5).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6, 8).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11-12).

그래서 이제 나는 무덤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벌레들이 나를 먹을 것이다(13-14).

읍은 삶을 포기하였으나 주님은 읍에게 그가 구한 죽음을 주지 않았다.

이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 그래서 이 고통 이후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  
“오래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고백의 의미

### 복음의 관점으로 읍기 보기

2차 논쟁에서 읍의 대답을 보면 1차 논쟁의 대답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을 내면 읍기의 의미가 퇴색된다. “왜 하나님은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가면서 읍기를 길게 기록하셨을까?”

롬15:4, 고전10:11, 소망과 위로 그리고 훈계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를 통해 종교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종교 시스템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읍기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한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12:2의 우리 믿음의 창시자, 독생자를 죽인다(11:12). 부활을 믿었다(19).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살린 자, 모세와 엘리야는 대언자, 여호수아는 상속 유업을 나누어 주는 자,  
다윗은 왕권을 가진 왕,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 등

읍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지 않을까? 2차 논쟁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종교인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분이 생각나지 않는가?

읍은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는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무죄하다.

읍기는 무죄한 자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 줌

욥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최고로 고통을 당함. 이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나?  
욥기의 주인공 욥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표  
욥을 보면서 무죄하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한다. 욥기의 관전 포인트  
**욥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제부터 욥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펴보자.

종교 시스템과 종교인들은 다 형편없는 위로자(16:2), 그들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3)  
말해도 고통, 참아도 고통(6), 나는 완전히 황폐해졌다(7),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7). 다 나를 버린다.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원수들이 달려든다(9-10).

경전치 않은 자들의 손에 내던져졌다(11), 과녁이 되었다(12). 만신창이가 되었다(13-14).

예수님의 일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곁을 떠난다. 일가친척 형제들도, 겨우 여인들 몇 명과 12제자(7)

아버지 하나님께서 짐승을 몰듯 그분을 십자가로 내모신다(11-12).

12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한다.

주변의 군인들, 백성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뺨을 때린다. 수염을 뽑는다. 결국 제자들도  
다 도망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결과가 16:13-14절이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증인이 있음을 말하고 누군가가 변호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는 결국 죽지 않는가?(17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욥기에 그대로 들어 있다.

#### 시편 22편

1절: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 욥의 상황

그럼에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3-4).

악한 상황(6-8)

악한 상황(11-14, 16-18)

호소(19-20)

소망의 결실(24)

욥기의 결론(28, 31)

#### 〈인생이 꼬일 때 욥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시22:1).

욥기가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가? 부부, 부모자식, 재정, 직장, 인간관계, 안 풀린다.  
그런데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욥의 결말이 분명히 보여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를 보여 준다(히12:2).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스터리, 가장 pessimistic, 가장 optimistic

지난 금요일 이사야서 36-39장, 히스기야의 일생

경건한 사람, 아시리아의 침공, 선하게 살았는데도 몸에 병이 온다.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바울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온다.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라도 해결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욥의 결말, 예수님의 결말이 그렇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불의를 당해도 인생을 이기며 나가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도 기도하며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 욥의 위대한 부활 신앙

성경말씀: 욥19:21-29

욥과 친구들의 2차 논쟁, 복음의 관점, 엘리바스 여전히 동일한 것 주장, 욥도 마찬가지: 나는 무죄하다.

“꼭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하는 것 아니다.” 욥은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무죄, 종교인들의 핍박 고통, 죽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 드디어 오늘은 부활 이야기, <욥의 확고한 부활 신앙>

### 빌닷의 공격(18)

일이 안 풀리자 빌닷은 욥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도 화를 냄(2-3)

이번에도 빌닷은 같은 것 반복: 1. 하나님은 공의롭다. 2. 죄인 심판, 의인 축복, 3. 욥의 고난,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4.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축복

욥 비난: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긴다(3),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시겠느냐?(4)

설득으로 안 되니 빌닷은 죽음의 공포를 도입함(5-21), 먼저 욥은 사악한 자(5), 그는 죽는다.

1.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5-6). 빛은 곧 생명을 뜻함, “너 이리다가 죽는다.”

2. 네가 다니는 길이 모두 위험하다(7-10). 울무(8), 덧(9), 강도(9), 함정(10)

3. 주변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위협한다(11-15), 11절, 결국 죽는다(13). 그 결과 그가 확신하던 것들(재물, 자식, 아내, 친구, 건강 등)이 꺾이고 멸망이 결국 그를 공포의 왕에게 데려간다(14). 공포의 왕은 죽음인데 그에게 가서 죽게 되면 생기는 일(15-19)

유황이 뿌려진다(15),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17), 결국 자식도 손자도 다 이별하게 된다(19-20).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20). 이것이 사악한 자의 운명(21)

빌닷의 잘못: 1. 그의 대화 상대는 욥: 그는 지옥 정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도(욥1:1, 8)

2. 모티브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묘사는 사실

죽음이 인류를 다스림(히2:15,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갇힘), 가장 무서운 원수(고전 15:26), 예수님의 말씀(마10:28),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 극복 가능(요5:24)

그리스도인의 죽음. 1. 아버지께 가는 것(요14:1-6), 땅에서 잠들어 하늘에서 깨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결론 및 확신: 빌닷의 말은 절대로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 욥의 대답(19:1-12)

빌닷의 죽음의 공포 위협, 죽는다. 그러자 욥은 죽기 전에 이미 나는 그런 공포를 다 겪고 있다고 말함

1. 모욕(1-4), 너희는 이미 열 차례나 나를 모욕했다(3).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를 더 준다.

내 죄는 내 죄다(4). 즉 내 죄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할 일이다. 너희가 나를 심판하지 말라

2. 욥의 상태, 1. 덧에 갇힌 짐승(6), 2. 법정의 죄수(7), 3. 사방으로 갇힌 여행자(8), 4. 폐위가 된 왕(9), 5. 폐허가 된 건물(10), 6. 뿌리째 뽑힌 나무(10), 7. 포위된 도시(11-12)

욥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19:13-22).

형제들, 지인들(13), 친척들, 친구들(14), 종들도 무시한다(15-16), 아내가 그를 멀리한다(17)

아이들도(18), 사랑하던 이들(19), 그 결과 잇몸만 가지고 도망하였다(20), a. 겨우 살아서 도피하였다.

b. 혹은 죽음 일보 직전이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함(21-22), 나를 핍박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라.

### 욥이 답답함을 호소함(23-24)

1. 내 말들이 기록되고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23)

죽기 일보 직전, 내 사정을 확실히 남겨야겠다. 빌닷의 말에 대한 반박(18:17)

그 당시의 문화와 기술, 철필로 글을 쓴다. 책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고대인들은 원시인이라 글을 쓰지 못하였다. 무식하였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욥26:7). 열역학 2법칙, 쇠퇴한다.

컴퓨터, 핸드폰은 지식의 축적된 결과, 지식이 축적된다. 이것이 지혜는 아니다.

## 이제부터 옴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무엇이 위대한가? 인간이 겪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최고의 희망 상태로 갔다가 다시 떨어짐

믿음의 여정이 인생 여정 내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나 고통과 핍박, 좌절을 겪는다. 낙망한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본다. 소망이 넘친다.

그리고는 다시 추락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

스펠전, 15세 회심, 22살의 나이에 설교의 황태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12,000명 수용 서리

가든 음악당 렌트, 1856년 10월 19일 그날 10,000명 참석, 저녁 6시경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야”

소리, 아수라장, 7명 사망, 여러 사람 부상

그런데 진짜 불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

그날 그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나와 설교하고 그 뒤로 35년을 더 살면서 복음 선포, 1857년 23000명 앞에서

설교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올게 되는 극심한 우울증, 존 파이퍼도 동일한 경험

35세에 통풍으로 인해 극심한 좌절과 우울증,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22년 재임 기간 중 7년을

설교하지 못함, 그리고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결국 57세에 조기 사망

스펠전은 그가 경험하는 우울증의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서는 우울증은 영혼의 힘을 한 방울씩 소진시켜

사람을 낙심케 만들고 결국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우울증의 어두운

면과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울증과 투쟁했던 루터의 “고통은 내 도서관의 최고의 책이다”라는

말을 종종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더 나아가 “그 고통의 책 중의 최고의 페이지는 가장 어둡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할 때를 기록한 그 페이지인데 그 이름은 우울증이라는 페이지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스터리, 가장 pessimistic, 가장 optimistic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옴의 위대함의 고백

### 옴의 부활 신앙(19:25-28)

이처럼 힘든 절망 속에서 그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소망: 부활

1.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내게 구속자가 계심을 안다. Redeemer, 나의 속박의 상태를 물리 줄 수 있는 분, 구원자가 아니라 구속자, 이미 구원받음, 이 억울한 사정에서 나를 빼내 주실 분

구약 시대의 친족 구속자. 오직 친족만이 빼앗긴 것(종의 속박)을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족으로 이 땅에 오심. 목숨을 내 주심.

이런 친족 구속자는 또한 속박당한 자를 대신해서 재판 자리에 갈 수 있다.

2. 지금은 안 된다 해도 맨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서 나를 구속하실 것이다.

3. 내 모든 것이 썩어도 그때에 내가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26).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4. 내가 본다. 직접 본다. 내 눈이 본다(27).

5. 옴의 소원: 중재인(9:33), 변호자(16:19)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제 그 변호자가 바로 구속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헨델의 메시아, 킹제임스 성경, 총 3부, 3부 시작 곡(45번째 곡),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당시 그에게는 성경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확실한 부활 신앙

옴을 조롱하는 세 친구들에게 당당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친족 구속자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구속자의 조건: 의지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많은 추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크리스천의 부활 신앙

옴의 경고(28-29):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

[http://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3937&section=sc9](http://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3937&section=sc9)

##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말씀: 욥23:1-17

욥기를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기독교의 구원, 성장은 올바른 좌표 설정에 달림

1.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 2. 사람이 이해/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성도에게도 닥친다. 3. 그러나 의인에게는 좋은 끝이 있다. 롬8:28; 15:4

욥이 세 친구들과 세 차례 논쟁, 두 번째 논쟁 시리즈, 엘리바스와 빌닷, 동일한 말로 공격  
사람 가운데는 자기 호소를 들어줄 자가 없으므로 욥이 죽기를 바라면서도 부활 신앙 고백(19:25-27)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의 목적은 무엇인가?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 소발의 공격(20)

2차 논쟁,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나서서 욥을 공격하지만 다른 것이 없다. 1. 하나님은 공의롭다. 2. 죄인 심판, 의인 축복, 3. 욥의 고난,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4.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축복  
소발의 키포인트(20:5): 사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

1. 그들의 삶은 짧다(4-11): 풍(7), 꿈(8), 자식들도 종살이, 다 망한다(10), 결국 죽는다(11)
2. 그의 모든 일이 악한 것이 된다(12, 16). 재물도 없어진다(15)
3. 풍요를 알지 못한다(17), 이유(19), 4. 갑자기 화를 당한다(22-23)
5. 옆친데 덤친다(24-25), 6. 결국 망한다(28-29).

### 욥의 반박(21)

- 1-6에서 다시 한 번 위로자로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한다(5). 조용히 입을 닫고 위로하라.
1. 소발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세상을 보라. 악한 자들이 잘 된다(7-16). 7-8절 우리 주변에도 이들의 문제: 하나님을 뺏다(14-15). 혼자 힘으로 잘되는 줄 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16).  
생각: 우리도 혹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는가?  
주눅이 들어서 혹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람의 번영은 꽃처럼 지나간다. 목련과 벚꽃을 보라.
  2. 잘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 어려움을 당한다(17, 18).
  3. 결국 사악한 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진다(22-34). 22절, 26절, 32-33절

### 엘리바스의 공격(22)

3차 논쟁 시작

1. 욥은 죄인이다(1-11). 5-7
2. 욥은 자기 죄를 감춘다(12-20). 13
3. 욥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21-30). 21-23, 그러면 복을 받는다(24-25, 28), 번영 신학의 대가 이쯤 되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 종교인의 확신 혹은 맹신  
혹시 우리는 이들과 같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들이 틀렸다고 하신다(욥42:8).  
변화가 생겨야 한다. 나는 내 틀에서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

### 욥의 대답(23)

욥은 친구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내 고통이 심하다(2). 어디에 가서 그분을 만날까?(3), 만나면 그분께 직접 호소하리라(4-5). 욥의 확신(6).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정을 아신다. 분명히 나는 구출될 수 있다(7).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8-9).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욥은 직접 만나고 싶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답답한 심정,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 무고하게 욥은 지금 용광로 속에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10).

계획의 목적: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 위대하게 하는 것  
용광로는 정제하는 도구, 순결하게 하는 도구(사48:10)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신4:20), 단련하는 도구(시66:10)  
초대 교회 성도들(벧전1:6-7; 4:12), 중세 암흑시대 성경 신자들  
우리는 어떤가? 날이 갈수록 좌경화

계획을 가지고 용광로에 넣으신 뒤 온도를 재시고 시간을 재신다(고전10:13).

우리는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확신이 있다(10). 정금같이 정제되어 나온다.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의 용의 상태(11-12). 죄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11, 12초).  
엘리바스의 주장(21;22). 말씀을 받으라. 용은 이미 하고 있다.

용은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들을 중히 여겼다(12). 마4:4

예레미야의 경험(렘15:15-21). 16, 그럼에도 고통이 지속된다(18). 주님의 약속(21)  
사람은 누구나 용광로를 경험한다. 예외가 없다. 여기에 들어가서 얻는 결과는 두 가지

1. 찌꺼기로 타 버린다. 2. 보물로 정제된다.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뜻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뜻(13-14), 사55:8-11

하나님의 주권 통치,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매우 많다(14).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참고 나간다. 정제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 떠난다(15-16). 나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의 두려움  
그 이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17).

#### 내가 가는 길(10)

1. 당신이 가는 길을 아는가? 삶의 목표, 종착지

연세 드신 분들, 꿈 많은 젊은이들

2.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신다. 비난과 비방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후6:3-10).

3. 당신은 당신의 길에 있는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가면 정제되어 나음을 믿고 있는가?

5. 인생의 목표: 구원받은 뒤 자라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

그런데 이것은 탄탄대호가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 뒤에 영광이 있다.

6.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12)

#### 나의 성경 번역 이야기

형제님

지난 3년 동안 할 수 있는 한 매일 평균 7시간을 작업했어요. 연구년 9개월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학기는 주에 3시간만 강의하고 나머지 전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목표, 정확하고 읽기 좋은 성경을 만들려고!!

이런 집념이 없으면 안 되지요. 성경이기에.

누가 묻거든 그리 답해 주세요. 이런 집념과 노력을 통해 마제스티 판이 나온다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도 잘 짓고 있어요. 8월말이면 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다 들어갔으므로.

건강만 유지된다면 약속한 대로 2020년에 출간할 것입니다.

성우의 녹음과 함께.

끝으로, 미진한 것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샬롬



##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성경말씀: 욥24:1-25

욥과 친구들의 3번 논쟁, 지난 주 2차 논쟁 끝 소발과 3차 논쟁 시작 엘리바스의 공격: 동일한 내용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변영신학

세 친구: 종교인, 위선자의 상태, 들으려고 살펴보고 하지 않는다. 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은 확신하다: 나는 죄가 없다(23:6).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욥은 지금 용광로 속에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10). 목적: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12).

###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세 친구들은 사악한 자들이 신속히 멸망한다고 주장함(20:5,7 등). 세상은 공평하다. 욥은 No!

1절: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신다. 그러면 심판하는 날도 있지 않은가? 진노하시는 날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따지고 싶다.

먼저 시골에서(1-11), 도시에서(12-17),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저주(18-25), << >>

### 시골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1-11)

시골에서의 악한 일(2-4)

원래 옛날에는 지계표가 있었다. 랜드마크(신19:14; 27:17; 잠22:28; 23:10; 호5:10)

짐승의 경우 화인을 찍어서 구별, 그런데 악한 자들은 땅과 짐승을 다 탈취함(2-3)

그것도 약한 자들에게서(과부와 고아, 3절), 그 결과(4)

이들이 하는 일(5-11), 악한 자들이 착취하는 모습

부지런히 악을 행함(5), 헐벗은 자 착취(7-8), 학대(9-10), 11절을 보라.

가난한 자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함, 심지어 소도 먹을 것이 있다(신25:4).

사람들이 신음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12).

욥의 논점: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신속히 사악한 자를 멸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 도시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14-17)

도시에서는 먼저 살인(14),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 토막살인, 연쇄 살인 등 잔혹 범죄 증가 간음(15), 도둑질(16-17),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

### 세상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항상 이 문제가 존재함, 노아, 욥,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지난 2000년 아삽의 시 73편, 1-6절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길까?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는 사람들로 구성됨, 결국 사람의 문제

사람의 죄 때문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

죄가 들어왔다. 요일2:15-1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 왜 그들은 악한 일을 할까?

1.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13)

2. 여기의 빛은 일단 햇빛으로 볼 수 있다. 악한 자들은 대개 어둠을 좋아 한다. 죄도 어둠 속에서

3. 지식의 빛, a. 양심의 빛, 선과 악을 구별하는 빛, b. 계시의 빛: 자연, 성경

4. 참 빛 하나님, 그래서 악한 자들은 빛을 거부한다(요3:19-21).

### ‘정의란 무엇인가?': 완전한 정의는 구현 불가능

특히 사회 정의, 경제 정의 등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잘못 이해하면 국가가 망한다.

1. 이스라엘과 유다 패망의 원인: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 실종

하나님은 선민들의 땅에서도 공평이 없을 것을 아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배려 강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선민도 이를 지키지 못함, 바빌론 포로 생활(미6:8)

포로 생활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마23:14, 23, 25).

그래서 신약성경도 구제를 강조함

주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사회 제도가 약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약 성경 정신: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한다.

2.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고 극단적인 처방을 쓰면 안 된다. 그것은 18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공산주의 카톨릭 중세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미 해방신학, 이것을 추구하면 가장 못 산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안 된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불가능, 인본주의

4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전 세계 살인 38%는 중남미... 전쟁터보다 위험>,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인데, 살인으로 죽은 사람의 비중은 38%에 달한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한 해 중남미에서 살인으로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며 "2000년 이후 17년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 수보다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3.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하다.

<편애하는 인간> 평등 강박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스티븐 아스마 (Against fairness) 누구 하나 나오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사회. 우리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사람들은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풍토가 불합리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서울대학교, 삼성전자 좋아한다. 거기 출신과 결혼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무지 싫어한다. 삼성전자는 일을 할 수 없다. 경영권 방어, 노조 설립, 삼성이 망하거나 나가면 이 나라는 심각해진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공정'일까? 어느 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선호와 편애는 정말 우리의 삶을 불공평하게 만들까? 공정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도덕적인 것이고, 편애는 나쁜 것, 버려야 할 마음, 부도덕한 것일까?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사심 없이 똑같이 대하라'는 이상적 공정주의에 물들어 편애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회에 '정말 편애가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결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난다. 이 문제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도 덜 심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무시하면 삶의 여정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고통과 슬픔, 불안과 질병,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들과 더불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5. 솔로몬의 결론: 전5:8, 전8:14, 9:11-12

6. 그러나 끝이 난다(전8:12-13).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요일2:17).

#### 악한 자들의 운명(18-25)

이들은 결국 시냇물처럼, 눈처럼 결국 사라진다(18-19).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20).

그들의 번영은 반드시 끝난다(23-24). 1. 그들의 악을 모두 눈여겨보신다(23).

2. 그 결과 그들은 곧 끊어진다(24). 3. 곡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이삭이 반드시 잘리는 것처럼(24) 지금은 안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25).

####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왜 두시는가?

1. 사악한 자도 쓸 데가 있다(잠16:4). 특히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아합, 김정은이 등

2.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도 구원하려 하신다.

3. 우리도 한때는 다 악한 자였다. 죄짓는 즉시 죽어 죽어 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벧후3:9).

인간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행복, 공평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바른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좌파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말씀: 욥26-27장, 롬15:4, 지혜 문학,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욥과 친구들의 논쟁, 3차 엘리바스와 욥(22-24장), 그들의 주장: 너는 죄인, 우리는 의인. 번영신학

그들: 사악한 자는 반드시 속히 멸절된다(20:5,7 등). 세상은 공평하다. 욥은 No!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된다.

사람의 죄로 인해 완전한 사회 정의 실현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24:23).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3차 논쟁의 마지막, 빌닷의 등장, 25장, 6절, 가장 짧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소발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 빌닷의 논쟁(25)

하나님의 권능(1-3), 하나님의 정의(4-6), 특히 4절은 엘리바스의 말(4:17; 15:14-16)

틀린 말이 아니다(2-3).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옳지 않다고 하신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들은 자기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발설함, 혹시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거룩함에서 나옴, 아무도 그분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4). 맞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시51:5)

중동 지방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유난히 밝다.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5).

그러므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6). 물론 여기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욥

결론: 그럼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부인, 내 부족함에도 부여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문제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수여 가능,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나님은 이들이 틀렸다고 하신다.

이런 자들이 종교인,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여기에 비례해서 은혜

### 욥의 대답(26)

1. 먼저 빌닷을 책망함(1-4), 2-3 설명,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도왔느냐?

중요한 절(4). 내가 말을 할 때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네 영  
네 말은 내게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였다. 마귀의 영이다!! 혹은 빌닷의 영이다!!

조심할 점(3):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된다. 이단들의 특징

욥의 결론; 너희의 신학 체계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 8명이 한 말의 결론

2.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5-14).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5-6), 우주 공간(7-11), 마귀(12-14)

a. 죽은 자들의 세상도 주님이 통치한다(5-6). 지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시139:7-8).

b. 우주 공간과 지구와 별들(7),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곳(사14:13), 1.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신다(우주 팽창). 2. 땅을 허공에 매단다. 14-15세기까지 사람들은 땅과 별 등이 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함. 조그만 물체는 달아야 가능, 이 큰 물체들은 공중에 떠 있음. 두부  
속의 구슬처럼 박혀 있음. 우주 공간은 무지무지 단단한 스페이스, 밀도가 대단함, ether,  
firmament, 단단한 것, 지구는 우주의 중심, 성경은 천동설, 가능함, 땅은 원이다(사40:22)

c. 물과 구름, 비의 형성(8-10)

d. 바다(12), 그 안의 교만한 자 마귀, 구부러진 뱀(13), 리워야단(사27:1)

e. 하늘의 기둥들을 떨게 하시며(11) 마귀까지 제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

3. 욥의 결론(14):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 자연계의 일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스티브 호킹(2018년 3월 14일, 76세 사망, 평생 우주 연구, 하나님 부정, 이제 자신이  
틀렸음을 일 것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다. 리처드 도킨스도 마찬가지로, 이단 괴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므로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너희 세 명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

###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27):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조그만 신학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대적함

아이를 괴롭히는 악당, 아이의 큰형이 와서 그를 붙잡은 뒤 혼을 내줌. 이런 모습이 27장에 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한 자: 성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 앞에서 그를

의인으로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위험함이다.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마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인을 정죄하지 말라. 욥처럼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 예수님의 경우 아무 잘못이 없었으나 그들이 그분을 죽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심(행2:23-24).

바로 이런 일이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아니면 최후에 욥기 4장부터 26장까지 8번에 걸쳐 이들이 마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도 욥을 비난하고 고소함 그래서 욥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치려 한다(11, 12절).

1.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의인임을 기뻐하고 자랑한다(1-6).

그는 먼저 맹세한다(2). 비록 그분이 정당하지 않게 심판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평생토록 결코 사악하거나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3). 우리 모두의 결심

그의 사랑과 기쁨: a.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5). 너희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도 너희가 틀렸다. b. 나는 순전하다. 온전하다(5). integrity, 추천서

c.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6). d. 나를 꾸이지 않으리라(6). 나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

e. 내 행위에 부족함이 있어도 마귀와 함께 나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교만의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다(히12:1-2)

2.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7-10).

이것은 욥의 소원, 동시에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7-10 절명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자식들이 악을 행합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딤후2:23-26 참가

3. 성도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11-23).

a. 내가 선생이 되어 가르쳐주겠다(11-12).

b. 경고하는 자의 말(13-23).

c.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13)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잘되는 것 같아도 영원의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개인적인 불행(14-15), 재물(16-18), 결국 죽는다(19-21),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 받는다 (22-23).

4. 결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귀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그는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5. 물론 이것은 욥을 통해 세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결국 이 셋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욥42장)

#### 무엇을 배우는가?

1.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름, 마귀 편에 서 있음, 우리도 조심

2.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고난, 인내 후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3.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4. 욥이 이들을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용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5. 지금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안보, 국경 오픈(이슬람 세력), 동성애, 사회주의/공산주의 일보 직전, 마귀의 편에 서서 나라를 망치려 하는 자들, 성도들을 근심에 이르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또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구하기 위해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야 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성경말씀: 욥28:1-28

욥과 친구들의 논쟁, 3차 엘리바스와 욥(22-24장), 빌닷과 욥(25-26), 27-31은 욥의 생각, 변호 세 친구들의 주장: 우리 말은 다 정금 같고 지혜롭다. 욥의 말 :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언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쓰레기.

지혜, 지혜, 지혜... 명철, 명철...(12, 20), 정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다. 잘 들어야 함. < >

### 지혜는 채굴할 수 없다(1-11)

광물을 캐내려면 광산에 가야 한다. 광맥(1-2, 6), 그 뒤 정련, 주조 및 가공, 귀금속

귀한 금속들은 거의 다 깊이 파서 캐낸 뒤 정제해야 한다. 지푸라기, 나뭇조각, 돌과는 다르다.

광물을 캐려면 돌도 파내고 물로 막으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3-4). 많은 노력

집중, 날짐승이 가지 못한 곳도 가야 한다(7-8). 필사적인 노력

절벽에도 가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9-10). 위험한 노력

1. 광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는 게으른가?

###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12-19)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등

그런데 돈으로 구하거나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영원한 것은 돈으로 못 산다.

공기, 물, 햇빛, 부모 등... 기쁨, 생명, 구원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지혜(15-17), 금 4회, 은 1회, 다른 보석 7-8회, 바꾸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 지혜의 값을 모른다(13).

###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20-28)

새처럼 하늘 높이 가도 발견 못한다!(21), 바다나 땅속 깊이 가도!(22)

오직 하나님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23).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아시며 주관하신다(24-26). 비와 천둥과 번개도

지혜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12, 20) 28절에 답이 있다. 잠1:7; 9:10; 시111: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 자체: 지혜의 정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욥1:8; 2:3), 그러므로 욥은 지혜로운 사람

욥의 세 친구들은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교인, 위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미천함, 부족함, 연약함, 죄성을 아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거룩함 속에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을?

그분 자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일(성경과 자연 세계)

우리 주 예수님의 경고(마10:28)

그러므로 영웅호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죽으면 곧바로 알게 된다.

스티븐 호킹, 리처드 도킨스,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팀 쿡

지혜의 효과(잠8:35-36)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

1. 그분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지킨다(전12:13). 2. 그분의 길로 걷는다(신8:6). 3. 성심껏 그분을 섬긴다(수24:14). 4. 그분에게 충성을 보인다(대하19:9). 5. 악에서 떠난다(잠3:7-8). 6.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마10:26-31).

###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가?

금요일 차를 타고 가다가 존 파이퍼 설교를 들음, 몇몇 교리에서, 성경 이슈에서 나와 다른 견해, 설교자로서 매우 좋은 분, 설교를 들으면 사람의 영과 혼을 저 위로 들어 올린다. 진짜처럼 이야기한다.

“How to get wisdom: Become a fool”, 베들레헴 침례대학 학생들에게 설교함

내가 저기에 더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 후반부 그대로 전달함

1. 지혜를 귀중히 여겨야 구할 수 있다(잠3:13-18). Prize  
지혜에 무관심하거나 지혜를 업신여기면 지혜를 구할 수 없다. 지혜는 하나님이다.
2. 기도(약1:5), Pray
3. 추구해야 한다(2:1-6). 돈을 벌듯이 구해야 한다. Pursue(붙들기 위해 뒤를 쫓아가야 한다)

#### 실제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1. 하나님의 말씀(시19:7) 말씀 없이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2. 하나님의 세상에서(잠6:6-8),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책들도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어리석음, 재앙, 아름다움, 민첩함, 열심  
세상 역사: 동성에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미국과 중국  
아이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나?
3.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하라(잠13:20). 그래서 교제,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파괴한다(고전15:33).
4. 영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시90:12).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영원을 숨 쉬는 사람들을 만난다(전7:3-4).
5.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계로 보아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골2:1-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혜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예수님), 예수님의 삶(언행), 죽음, 부활, 승천, 통치, 역사관과 세계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된다.

####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고전3:18-20)

1.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2.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고전1:18-24)

1.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믿는다(1:18).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구원 가능  
복음 선포의 지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2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는다.
2.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 목사도,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3.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 6일 창조, 6000년 역사, 이스라엘 귀환,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  
휴거(부활)와 재림을 믿는다. 천년왕국을 믿는다.  
동성에 반대, 국가 사랑,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공산주의 사회주의 No!), 프로테스탄트가 가져온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이 안에서 약자 보호)
4.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가 되어야 한다. fool  
생각하는 바보, 행복한 바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보, 소망으로 가득한 바보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지혜로운 자, 영원을 소망하는 자
5. 이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6.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불리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한다(고후12:10).  
베드로와 사도들(행5:41), 벰전4:14  
그럼에도 기뻐하고 소망을 더 가지며 결국 바울처럼 목이 잘려도 순종하며 나갔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욥과 세 친구: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분의 계시가 성경이다. 성경 신자,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욥의 최후 진술: 나는 투명한 양심으로 살았다

성경말씀: 욥29:1-25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3차에 걸쳐서(4-31장), 욥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위선자 지난 주 욥기 강해, 지혜란 무엇이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욥29:28),

욥과 세 친구는 더 할 말이 없다. 소발은 3차 논쟁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제 욥의 마지막 정리 29-31 29장 과거, 30장 현재, 31장 자기변호, 나는 투명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 < >

### 욥의 과거(29)

재난을 당한 뒤 욥은 곧바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함(욥3장). 3절부터...

29장에서는 재난 이전에 자기와 가족들이 누리던 복을 회상함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신다. 재난도 있고 복도 있다(욥2:10).

스펠전: 많은 사람들이 복은 모래에 기록하고 재난은 바위에 기록한다.

그때가 참 좋았다(2).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던 때, 우리 모두 이런 때가 있다.

신명기 모세, 기억하라(신8:2), 과거는 우리를 매는 닢이 아니라 키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인재의 복)

1.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2). 그분의 빛(3), 하나님이 그와 친밀하게 지냄(4). 내 가족이 전능자와 함께 지냄(5), 하나님이 만복의 극원(6)

젊은 시절을 누구나 그리워한다(4). 그리고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늙음과 죽음이 온다.

바르게 늙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2.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7-11)

3. 다른 사람들을 섬김(12-17),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섬겼다.

4. 미래에 대한 확신(18-20),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5.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았다(21-25). 그는 한 마디로 지역 사회의 리더였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 내가 속한 가정, 사회, 교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

### 욥의 현재(30)

현재 상태(1). “그러나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직시함

1. 존경을 받지 못한다(1-15); 젊은이들이 조롱함(1). 이들의 아버지들, 자기가 한때 나귀처럼 비천하게 여기던 자들(7), 그런데 하나님이 줄을 놓자 이들이 심히 조롱함(11)

2. 복이 없다(16-23), 고난의 날(16절), 기도의 응답이 없다(20), 주님이 잔인하게 느껴짐(21).

3. 도움이 없다(24-25), 과거의 나, 지금 아무 도움이 없다.

4. 미래가 없다(26-28)

5.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사역을 할 수 없다(29-31).

### 내 양심은 투명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31)

욥의 마지막 변호, 맹세를 하고 법적 문서에 도장을 찍는 심경, 잘못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31:35-37).

죄가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람이 짓는 죄 나열, 16번이나 “만일 내가...”(5-6절)

단 하나의 호소: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만 주면 좋겠다(35).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죄

1. 정욕(1-4), 음욕, 약1:13-16, 마5:28

하나님의 심판(2-3), 멸망이다.

2. 속이는 것(5-8), 사업을 하면서 사기 치거나 속이지 않았다.

3. 간음(9-12), 잠6:27-29, 엡5:3-7 등

4. 그 이후에 그는 종을 고용하는 사람(13-15): 종들을 학대하지 않음

5. 이웃 관계(16-23, 29-32):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줌,

6. 예배하는 자(24-28), 오직 하나님만, 물질이나 창조물을 섬기지 않음

6. 청지기(38-40)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잘 유지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는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림(35). 나는 투명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고통을 받는다. 벧전4:12-16

명백히 죄를 짓고 나서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면 안 된다. 욕은 투명한 양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투명한 양심, 담대해 진다.

###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Conscience) 신약에만 31번,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 기능(롬2:13-15). 양심을 통해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린다.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

양심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때에는 어떤 것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

양심이 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확신을 주지만 양심의 가치는 사람의 혼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혼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굽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양심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행26:9). 그의 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자기의 양심에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지 않은 데 있다. 시대를 통해 교회를 박해한 사건들과 의도적인 오류들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빛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 준다. 선하고 순수한 양심(딤후1:5; 3:9)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순종할 때 범법하지 않는다(행24:16).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KJB, 근본적 믿음, 애국 약하고 결의가 없고 어두워진 양심(고전8:7)은 더러워진 양심으로서 부패한 마음의 노예 노릇을 할 뿐이다(딤후1:15; 히10:22). 이것은 또한 인두로 지진 양심으로(딤후4:2) 은혜에 의해 변하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양심이 되고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몸의 상처는 결코 양심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것이다.

### 투명한 양심을 가지면 담대해진다

행23:1; 24:16, 고후1:12, 딤후1:3

마르틴 루터의 고백: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겠다. 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 어떻게 투명하게 유지하는가?

우리의 양심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양심의 의도가 좋아도 결국 내 의를 주장하게 된다.

세상 지혜: 역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 현자들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혜 중의 지혜인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양심을 재는 척도 히9:14, 죽은 종교 행위로는 불가능: 날, 음식 등 여러 가지 문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즉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회에서는 주변 성도들의 권고

이중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종교적 위선이다.

욕처럼, 바울처럼, 루터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성경말씀: 욥33:12-33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마지막으로 29-31장에서 욥은 자기의 과거, 현재를 비교한 뒤 맹세를 하고 나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변론에 응해 주시기를 구함. 바른 양심, 투명한 양심의 필요성

세 친구 침묵(32:1):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침묵: 소리도 불도 비도 없고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음. 세 친구가 틀렸다. 욥에게는, 창조물이 부른다고 내가 아무 때나 대답하겠느냐?(33:13) 일일이 해명 No!

젊은 사람 엘리후가 침묵을 깨고 등장함,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옳으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세 친구들처럼 비슷한 것을 말하는 대목도 있지만 의도가 다르다.

1. 그는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가 옳지 못함을 보인다.
2.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의미: a. 꼭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33:18, 24).  
b.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36:1-15).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33:6),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32-33장 강해,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 엘리후의 등장(32)

엘리후는 오랫동안 참다가 등장함. 1. 나이가 어리다(4, 6-7), 예의를 지키는 사람

2. 전체를 듣고 말하려 하였다(11). 그들의 말에 주목함(12)

그가 말해야 하는 이유

1. 화를 냄(1-3, 5): a. 세 친구(3): 답도 모른 채 욥을 정죄함  
b. 욥(2)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함
2. 영감을 받았다(8-10).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데 엘리후는 젊다.  
그에게는 영감이 있다. Inspiration(8, 딤후3:16),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통찰력  
그분의 영이 그의 영을 지도함(8). 그 결과 그는 지혜롭게 깨닫는 말을 함(8). 이것이 사람의 특징  
위대한 자라고 지혜롭지는 않음(8),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딤후3:15-17)  
그래서 그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 ck레 말함(32:10; 33:1, 31, 33 등)
3. 그는 공정하였다(14, 21-22). 욥이나 세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편파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또 그들의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16-20). 오래 기다림, 말이 넘쳐 터지려고 함.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만 할 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함

### 은혜로우신 하나님(33)

33장은 욥기에서 가장 멋있는 연설, 선한 자에게 닥치는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세 친구의 주장: 욥은 고통은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변영신학

엘리후: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18), 그 결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24).

먼저 1-7절에서 그는 자기의 말이 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인다(3).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6).

다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무섭게 하지 않겠다(7).

욥의 말을 인용함(8-11).

1. 욥은 죄가 없다고 하였다(9).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욥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의롭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2:3; 27:4-5). 사실 그는 완전함을 부인하였다(9:20). 다만 엘리후에게는 그의 말의 뉘앙스가 마치 그가 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느껴짐
2.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욥을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욥이 말했다고 함(10-11). 이것은 사실이다

(13:24, 27; 16:9; 19:7, 11)

3. 그의 설명 논제(12-14) a.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다(12, 교만하게 굴지 말라), b. 해명할 필요가 없다(13, 창1:1). c.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14).

4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

a. 꿈과 환상(15-18), b. 고통(19-22), c. 중보하는 사자(23-33)

### 선한 사람에게 닥치는 고통의 의미

하나님은 욥 같이 선한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을 줌: 목적 교만을 누르고 순종하게 하는 것(17-18)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덩이에서 물러나지 않음(22), 거기로 들어감(24, 28)

14-33에는 구덩이(pit)라는 말이 4회(18, 24-28, 30), 구덩이는 진짜 구덩이,

영원한 상태와 관련해서는 원래 지옥을 뜻한다. 물론 여기서는 사망, 파멸, 지옥(사14:15)

그런데 결국 중재자가 그를 건져냄(30), 그 목적(29-30)

14절의 의미: 한 번 두 번 말씀하신다.

1. 꿈과 환상(15-18):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심, 지금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히1:1-2).

욥도 이미 이런 것들을 체험하였다(7:13-14). 엘리바스도 이런 일 체험(4:12-21)

목적(16): 귀를 열기 위해, 교훈을 봉한다. 확실히 알려준다.

그런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구덩이로 들어간다.

여하튼 이제는 꿈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드디어 고통이 닥친다. 아마도 욥에게 이미 이런 경고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

2. 고통(19-22):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깨달으라고. 메가폰이다.”

엘리후는 식욕을 잃고 침상에 누운 사람 묘사(19-20), 뼈가 다 드러난 불쌍한 존재(아마도 욥 21-22)

그의 고통의 원인: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경고

1. 모든 고통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다. 자동차를 잘못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내 잘못, 잘 못 먹고 소화 불량, 운동 부족, 또 죄로 인한 고통

2.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가? 아니다. 엘리후를 통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12:7-10)

3. 우리는 보통 고통의 제거를 위해 기도, 바울은 고통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함

3. 사람을 도와주는 중재 사역자의 필요(23-26)

말을 듣지 않고 구덩이로 거의 다 내려감. 이때 그에게 경고를 주는 사자가 있다(23).

많지 않다. 천 명 가운데 하나, 해석하는 자(말씀 해석, 상황 해석), 그와 함께하는 사자 바로 그 사람이 당사자 앞에 나타나서 선다. 그리고 곧바른 길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하시는가(24).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ransom(막10:45; 뎀전2:5).

이 사자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욥이 그렇게 찾던 존재가 바로 이분, 사자, 중재인 해석자(욥9:33), 증인(16:19), 구속자(19:25)

그런데 이 사자의 시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33:24)

대속물: 노예로 팔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구해야 한다. 구속자, 대속물

죄의 시장에 죄의 노예로 팔리면 명예, 재물, 영화, 지식, 학식으로 안 됨

사람이 할 수 없음. 누구나 다 죄인

오직 사람의 창조자인 하나님만 할 수 있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결과 순식간에 새 살을 입음(25), 그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심(26)

그 일을 이루려면 회개가 필요하다(27-28).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29-30).

고통의 의미, 안전 장치, 구속자께서 대속물을 주신다. 은혜로 영적 육적 구덩이에서 구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는가?

##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성경말씀: 욥34:1-37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모두 침묵한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침묵을 깨고 등장함,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33장에서 그는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줌.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18)

그 결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24). 빠질 때에도 구속자를 통해 구출해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대속물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신학이라는 학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 참으로 귀중한 것, 살고 죽는 것 결정, 가장 중요한

지식, 그런데 어렵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대 공간의 알 수 없는 분을 알려고 노력하므로(롬11:33-36)

성품 계시: 창조 세상, 섭리, 말씀, 아들, 그러나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

욥의 불평: 1.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 >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가?(34:5-6, 10-37)

이 문제는 욥기의 중요 주제 중 하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의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엘리후의 반응 역시, 이 말 때문에 튀어나옴(32:2)

엘리후가 마이크 앞에 욥을 두고, 세 친구와 모두 듣고 있음

2-4절, 한번 문제를 짚어 보자. 대상 지혜로운 자들, 지식 있는 자들(2), 욥과 세 친구 장로들

깊이 생각해 보자(3), 주제: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무엇인 옳은 것인가(4)

욥의 주장: 하나님이 나를 사악한 죄인 취급하며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함.

욥의 말: 공정함을 빼앗아가셨다(34:5). 나를 향해 화살을 쏘셔서 상처를 내신다(34:6; 6:29).

엘리후의 말(7-9), 욥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악한 자들과 한 패이다(8).

1.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10). 먼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10-15). 10절, 12절

소돔을 멸하려는 계획, 아브라함의 말(창18:23-25), 50, 45, 40, 30, 20, 10명

하나님이라면 완전해야 한다. 모순이 없어야 한다. 삼각형 원 No!, 직사각형 원 No!

사람의 길대로 갇으신다(11). 심지어 사람의 죄 자체가 사람을 덮치게 한다(시9:15-16).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13).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14-15).

우리의 죄대로 다루시면 모두가 곧바로 죽는다(애3:22).

하나님의 주권: 의로운 자인 욥 시험, 심지어 사탄도 마음대로 못한다. 바울에게도 병을 주시고 안 고쳐 주신다. 욥기에서 31회나 전능자

이를 통해 엘리후는 38-41장의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한다.

2. 이제부터는 욥에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정의를 집행하는 정부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16-20).

아마도 욥은 그 당시 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함(29:7-17).

정부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우셨다(창9:1-7). 목적: 정의를 집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의 정부가 의롭게 법을 집행하는가?

그러면 사회는 혼동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18). 롬13:1-7

정부에 관한 것, (주 안에서만) 순종한다. 산파들과 파라오, 엘리야와 아합,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침례자 요한과 헤롯, 존 나스, 마르틴 루터 등 종교 개혁자

일반적인 것과 특별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면 항거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 여기에 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특별 상황이 있다.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정의롭지, 완전하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없다(21-30).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인간 재판관은 한계가 있다(21-22).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시므로 아무도 숨을 수 없다(시139:7-12).  
욥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불필요(23). 원더풀  
우리가 알아야 할 것(23). 불평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신의  
실수, 사람의 힘으로 고쳐야 한다. 유포피아 건설, 이상향, 아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23), 우리의 정부 등 모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받고 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한다. 목사가 타락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다. 성도들의 잘못, 타락, 성도들 수준에 상응하는 교회와 목사를 받을 뿐이다.

재판관들의 시대, 본인들이 원하는 치리자를 받는다.

4.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29).

욥의 불평: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신다(9:11; 23:1-9). 엘리후의 답변(29).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노아 당시 120년, 가나안 백성의 죄 무려 400년

개인도 국가도 오래 참으신다(29). 그러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이스라엘에게는 근 2000년이나, 그러나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다.

늦더라도 심판이 없으면 위선자가 득세하고 백성이 멸망한다(30).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31-33).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욥은 회개해야 한다(31-33).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대하33장), 12세에 통치, 55년 동안,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히스기야가 치운 모든 우상 다시 세우고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고 지나가게 하고 요술, 마술 등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감

그에게 기회를 줄 때 그는 회개함(33:10-13), 성전 보수 등, 이런 자도 고쳐 주신다.

회개하기 전에는 시련이 계속된다(34-37)

욥에게 말하라고 하나(33) 그가 답을 안 하자 그를 세차게 비난함(34-37).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대하28장, 20세 통치, 16년 간, 므낫세와 동일한 일(28:1-4)

고통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돌아서지 않음(29:22).

### 결론

왜 엘리후는 이렇게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는가?

이 주제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욥이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계속해서 시련을 겪을까 봐  
우리의 확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인류 멸절, 가나안 정복 시 아이들과 여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  
인과 유대인 문제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정의가 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가장 감사한 것, 만일 하나님이 정의로만 나를 다루셨다면 이미 지옥행이다.

정의를 베풀면서도 소돔을 치실 때 롯을 구해내신다.

노아와 8명을 구해내신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 결과 사랑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롬3:21-26).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악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악한 자들과 떨어져 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과 떨어져 살 수 있다(고전6:9-10; 갈6:19-21).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회개하고 믿고 감사해야 한다.

##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성경말씀: 욥36:1-33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그는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음을 알려줌. 고통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18)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구속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신다.

욥기의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준다.

지난 주 34-35장, 욥의 불평: 1.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심을 증언한다. 정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정의롭게 세상을 치리하는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분은 정의롭다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에게 취사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유한한 머리로 무한한 그분을 평가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엘리후의 설득에도 욥은 끄떡하지 않는다.

드디어 38장에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38-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증언 이 일을 위해 엘리후는 차곡차곡 준비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 하나님은 위대하시다(5, 22, 25)

마지막으로 설득함, 아직도 할 말이 있다(2). 먼 데서 가져온다(3), 내 말은 진실한 말이다(4).

하나님은 강력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5).

강력하신 이유: 사악한 자 심판(6), 의로운 자 심판(7),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욥의 불평: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No(7),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신다. 너를 높이신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잘못을 알려주고 되돌아오게 하신다(8-11).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8).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좋은 일들이, 좋은 날이 온다(11).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12-14). 결국은 위선 가운데 죽는다(13).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이다. 마음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 욥은 결단해야 한다(16-25)

하나님의 목적(16): 곤경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 하신다. 욥의 경우에도

욥의 문제: 1.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2. 죽으려고 생각한다(20). 불법(21): 교만한 생각, 불평, 원망 등 절대 자살 No!

모든 소망을 포기하려 하면 이런 생긴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22-24).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24).

###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사막 지역의 사계절

1. 가을(36:27-37:5), 여름의 열기 이후 가을의 비, 구름들이 형성되어 비를 내리는 과정 묘사 비가 올 때 천둥소리(4-5)가 나고 번개가 친다(3).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심장이 떨린다(37:1).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야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찾아옴, 쏟아지는 비를 보라. 수많은 짐승이 산다.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 짐승들을 먹이신다(36:31).

2. 겨울(37:6-10), 겨울에는 대개 손을 놓고 쉬다(7-8). 이때에 하나님이 눈도 내리고(6) 서리도 내린다(10). 북극과 남극, 알래스카 대륙, 지리산, 설악산을 보라.

3. 봄(11-13), 다시 비를 내리는 구름들 형성. 심지어 구름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일(13)

4. 여름(14-18), 여름의 고요함 따뜻함(17), 하늘은 늦으로 만든 겨울처럼 빛난다(18).

구름의 균형(16), 완벽한 지식의 하나님(16),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일거수 일투족

네가 하늘을 펼쳤느냐?(18), 우주의 팽창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시104:2-4; 사40:22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을 보라.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라.

우리는 매일 푸른 하늘 아래 살고 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감(출24:9-10)

하늘을 보면 경외감이 생긴다.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를 작게 만든다.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은 하늘에 대해 자주 말한다. 시8:1-4, 롬1:19-20

결국 38-41장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늘은 딱딱하다(18). firmament(창1:14-17), 엄청난 밀도, 우주 공간 최대의 밀도

그 안에 모든 별들이 들어 있다.

엘리후의 질문. 네가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느냐? 심지어 좋은 날씨도 하나님에게서 온다(22).

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18)

자연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느냐?(23)

안다고 하면 삼켜질 것이다(20). 그러면서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24).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닥쳤을지도 모른다. 38:1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심, 이제 드디어 읊은 그토록 원하던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한다.

#### 엘리후의 정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읊을 예비함(37:14-18). 38-41장 준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

1.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가르쳐 줌
2. 읊의 문제 지적: 읊의 행동은 옳았을 것이다. 다른 세 친구와 달리 죄인, 위선자는 아니다.
3.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더 심해짐, “나는 다 안다”.
4. 결국 하나님은 38-41장을 통해 이 태도를 교정해 주신다.
5. 이 역할을 엘리후가 잘해냄.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좋은 대언자 33:23-24
5.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엘리후처럼 좋은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33:23-24)

#### 결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귀의 전쟁,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인간은 전쟁 참여 군사로 보고 있음

소대장에게 명령이 떨어짐, 그의 생각에는 많은 부상과 피해가 있을 것 같음

그런데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전쟁에서 이긴다.

소대장에게는 전쟁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이해 부족). 또 전 군대를 지휘할 권위도 없다.

비행기를 타고 전세와 지형, 그리고 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령관만이 이해, 권위 소유

엘리후의 이야기: 우주 공간 전체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만이 선으로 악을 누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할 수 있다.

우리 사람처럼 한곳에 위치가 정해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의인에게는 결국 좋은 날씨가 온다(22). 그분은 위엄이 있는 분이다(22).

위엄(Majesty); 높이 계신다. 위대하시다. 사57:15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씨가 온다.

## 네가 우주와 세상과 땅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성경말씀: 욥38:1-41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지난 주 엘리후의 마지막 설명과 권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하늘을 보라. 사시사철을 보라. 결론: 37장 23-24절

### 하나님이 나타나심

엘리후가 언급한 폭풍우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심(38:1), 4장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묘사,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 주심

이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말로, 자연계 연상으로 설명하였으나 다 실패, 코끼리 설명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자 드디어 욥은 그분 앞에 복종함

“하나님의 대답은 이론적 설명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4장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과 자연계의 일들을 두고 77개의 질문을 던지시며 주석까지 다신다.

이유: 욥13:22,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들어가서 대답하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 심판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 주시려고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창조 때의 파워와 지혜
2.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감독/관리할 수 있느냐?(38:39-39:30), 섭리, 욥의 1차 반응(40:1-5)
3.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40:6-41:34), 공룡과 마귀, 욥의 2차 반응(42:1-6)
4. 결국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킴(42:7-17).

주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함(38:1, 40:1, 3, 42:1, 7 등 총 13번)

욥기 1-2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음.

출3:13 이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 <----->

###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욥의 자랑: 나는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하나님의 대답(2), 여기의 이자는 엘리후가 아니라 욥

욥은 하나님에 대해 진리를 말하였으나(42:7) 겸손함이 없었다(42:7).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몰랐다.

겸손의 비결: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1. 우주와 세상 창조(4-7), 읽고 설명, 건축자처럼 우주를 지을 때의 모든 것 설명

심지어 새벽별(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름(7)

“네가 어디 있었느냐?”(4), 아느냐(5), 6-7절 읽고

2. 바다를 보라(8-11). 창1:1-3, 처음 바다, 물을 보아 대륙 만들(창1:9)

바다는 태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물들을 모으니 터져 나왔다.

누가 그 일을 하였느냐?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만 바다가 있다. 지구 표면은 71%가 바다, 태평양이 가장 크다(표면의 30%),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트렌치 11킬로미터, 땅보다 산맥이 더 많다. 숨 쉬는 산소의 50% 이상이 바다에서, 바다 물은 움직이며 지구를 돈다. 1000년에 한 번씩, 25만 종의 생물,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제 겨우 바다의 5%를 이해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3. 해를 보라(12-15), 12절 읽고, 마치 사령관처럼 해에게 명령하고 뜨고 지게 하심

해의 지름 139만 2천 킬로미터(지구의 109배),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 지구를 100만 개 넣을 수 있다. 1초에 220킬로미터를 움직인다. 표면 온도 5500도씨, 중심 온도 1500만도씨

4. 11개 질문(16-24), 16절 읽고, 창조 세계의 엄청난 크기, 바다 깊은 곳(16절, 약 11킬로미터) 땅의 너비(18절) 네가 아느냐(21), 눈과 우박(22)

5. 비(25-28), 늘 접하는 비, 25절, 26절 아무도 거하지 않는 데도 비를 내려 관리한다.  
크기 0.1-9mm, 비가 내리는 속도=시속 32킬로미터  
광물이 섞이면 컬러 비가 내린다. 고기 비도 내린다.
6. 얼음(29-30), 우박과 서리의 형성  
이쯤 되니 그만하시라고 하려는데 하나님은 더 나가심
7. 우주 공간의 별들을 보라(31-33), 별자리, 이것들의 움직임을 내가 아느냐?(33)
  1. 별들의 수: 무한대, 그런데 하나님은 수효를 아시고 이름을 아신다(시147:4)
  2. 태양계의 모든 별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있다. 태양의 무게가 98.8퍼센트, 0.2퍼센트가 나머지
  3. 이런 태양이 은하수에만 1,000억 개, 지구는? 우리는 이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다.
8. 구름들(34-38)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내 파워와 지혜를 네가 조금이라도 아느냐?

### 2.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감독할 수 있느냐?(38:39-39:30)

욥 앞에 6마리 짐승(사자, 들염소, 암사슴, 들나귀, 유니콘, 말)과 5마리 새(까마귀, 공작, 타조, 매, 독수리)를 가져오심

1. 38:39, 41, 39:1, 13 19, 26, 27 등 설명

이 모든 것들의 삶을 묘사하신 뒤 “이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내 몸 하나, 가정 하나 바로 돌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심지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다 돌보신다. 짐승과 날짐승의 살고 죽는 것도 유니콘의 경우 힘이 워낙 세서 사람이 다룰 수 없다(9-10). 그런데 내가 먹고 재운다.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나를 만나 재판장에서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40:1-2)

나와 함께 재판하러 가고 싶다고 했으니 이제 대답해 보아라.

### 욥의 1차 대답

1. 나는 비천한 자이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4).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재판장에 갑니까?  
과거에 욥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을 막았다(29:9).  
세 친구들에게도 그러하고 하였다(21:5).
2. 이제 욥은 스스로 자기 입을 막았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 봐.
3. 우리 스스로 입을 막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 결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유한하므로 다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판박이  
그래서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연세계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롬1:18-19). 모른다고 하면 짐승  
그런데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21-23).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3:23).

하나님을 알려면 입을 막아야 한다. “나는 비천한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행

우리는 우주와 세상과 땅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나를 아는가? 창조자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지력, 센스, 겸손이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 네가 공룡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욥기 20)

성경말씀: 욥40:1-24, 42:1-6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엘리후 등장 32-37장까지 6장, 하나님의 성품 욥이 설득되지 않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심, 묘사가 아니라 드러내 보여 주심, 77개 질문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창조 때의 파워와 지혜, 6일 창조,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 비, 우박
2.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감독/관리할 수 있느냐?(38:39-39:30), 섭리, 욥의 1차 반응(40:1-5)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욥의 반응,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입을 막겠습니다.”(40:4)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5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심(40-41장)
3.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40:6-41:34), 공룡과 마귀,
4. 욥의 2차 반응(42:1-6)

### 1. 베헤못(40:6-24)

40-41장, 창조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해 네가 대답할 수 없으니 딱 2개만 묻겠다.

남자답게 대답하라(7). 내게 도전했으니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해 봐라.

질문의 핵심: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판단의 공의 및 정의(40:8).

욥의 주장: 1.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게 자기를 다루었다(27:1-6).

2. 악한 자들을 빠르게 심판하지 않으셨다(24:1-7).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된다.

하나님의 제안(9-14), 1. 네가 할 수 있거든 거룩한 분노로 악한 자들을 한 번 심판해 봐라(9-13).

하나님의 팔(무력), 음성 파워(9), 하나님의 속성(10절). 교만한 모든 자, 사악한 자(11-13)

2.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리라(14).

그런데 일단 그 일을 하기 전에 베헤못이라는 공룡을 한번 보라(15-24).

베헤못, 하마(코끼리, 악어 등)가 아니다(15). 브론토사우루스

특징(15-18). 사람과 공룡을 같이 만드셨다(15). 17 꼬리는 백향목 같음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다(19).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갈 수 있다(19).

모든 짐승이 공룡을 위해 먹이를 낸다(20). 늪 속에 누워 있다(21-22).

요르단 물을 다 마시려 한다(23).

엄청난 괴력 소유(24), 네가 이런 공룡을 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 2. 리워야단(41:1-34)

리워야단, 바다의 뱀, 악어(고래)가 아니다(사27:1). 용, 뱀

성경의 용은 중국의 용과 다르다. 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공룡이다.

원래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공룡을 지칭하는 ‘다이너소어’(Dinosaur)

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영어에서 그런 괴물을 통칭하여 ‘용’으로

불렀다(옥스퍼드영어사전, 앵글로색슨연대기 등 참조).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 혹은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용이라고 지칭한다(계12: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네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1-11), 그것을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느냐?(5)

무서운 존재이다(9-10).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11).

리워야단의 특징(12-17).

심지어 입에서 목구멍에서 불을 뿜는다(19-21). 불을 뿜는 용

엄청난 가죽, 괴력(23-24),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25-28).

땅 위에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33). 두려움 o벗느 존재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34).

단순히 공룡으로만 볼 수 없다. 교만한 자녀들의 왕 마귀(악어, 고래 No!), 마귀의 특징: 교만

지금까지 너를 괴롭혀 온 마귀를 네가 정복할 수 있느냐?(계12:9).

### 3. 욥의 두 번째 응답(42:1-6)

회개함(2-6), 욥이 역시 회개의 책이다.

잘못 알고 무지한 채로 지내면서 다 안다고 했으니 회개해야 함  
회개하는 이유(5), 주님을 보니 더 할 말이 없다. 코끼리 묘사 필요 없다. 보면 끝  
회개의 내용(3), 주님의 말씀 그대로(38:2)

“나는 77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2절), 회개란 무엇인가?(6), 자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  
이렇게 회개하자 그는 죄인에서 종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책망(7),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8), 이들의 실행(9)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배를 주심(10)

그의 친지들과 친척들이 오해를 푸고 회개하고 선물을 줌(11)  
그 결과 그는 마지막이 처음보다 두 배나 더 좋았다.

42:12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13: 아들 일곱, 딸 셋

1장 2절 아들 일곱과 딸 셋

3절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가  
짐승은 두 배, 사람은 그대로, 왜 두 배가 아닌가?

그의 아들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람(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아들 일곱, 딸 셋만 주어야 2배이다.

누가 낳았을까? 다른 아내를 주었을까? 성경에 답이 없음  
그 이후에 140년을 평안하게 더 삶(16), 두 배를 적용하다면 아마도 70세에서 210세 정도까지  
늘도록 장수하고 죽음

### 결론

42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걱정과 시험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며 2배의 축복을 받는가?

수명도 늘어나고 행복하게 손자 손녀들 보며 삶을 마감하는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형,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압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음, 히11장을 보라. 믿음의 위인들, 아벨부터 구약의  
여러 사람들, 욥처럼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 믿음의 사람들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항상 옳으시다. 여기서든 아니면 하늘에서든(롬8:28)

욥의 가장 큰 축복: 짐승 2배, 아이들, 부유한 사람 yes..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것, 무한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된 것  
약5:11

히12:11

욥23:10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6:3-10)